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영국

I .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영국(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면적	241,930 km ² (자료원 : The World Bank)
수도	런던(London)
민족(인종)	백인(86.3%), 아시아인(7.2%), 흑인(3.2%), 혼혈(1.6%), 기타(1.7%)
언어	영어(공용어), 웨일스어, 스코티시 게일릭, 아이리시 게일릭
종교	기독교(49.6%), 무교(40.4%), 이슬람교(5.3%), 힌두교(1.5%), 시크교도(0.7%), 유대교(0.5%), 기타(1.6%)
기후	온대 해양성 전반적으로 바다의 영향을 받는 온화한 기후로, 일반적으로 겨울에 시원하고 습하며 여름에는 따뜻하고 습한 기후를 보인다. 극한의 더위나 추위, 가뭄, 바람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편이다. 사계절을 이루지만 장소와 시간에 따라 날씨 변동이 잦다. 수도인 런던의 경우, 여름에는 따뜻하고 건조하며 겨울에는 춥고 건조한 기후가 특징이다.
국가원수	국가 원수: 엘리자베스 여왕 2세(Her Majesty Queen Elizabeth II) 총리(실권자):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883-11-26 (자료원 : 대한민국 외교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조영 통상조약	1883-11-26	조영 통상조약 체결	
잠정 항공협정	1954-08-29	잠정 항공협정 체결	
주한 영연방군 대여금 청산협정	1954-09-28	주한 영연방군 대여금 청산협정 체결	
항공협정	1960-05-26	서울-홍콩 간 항공업무 재개에 관한 한-영 항공협정 체결	
차관협정	1964-08-04	차관협정 체결	
항공협정	1967-05-10	항공협정 개정	
사증면제협정	1969-12-18	60일간 유효, 30일간 연장 가능	
항공협정	1970-04-30	서울-홍콩 간 항공업무 재개에 관한 한-영 항공협정 개정	
항공협정	1972-05-02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	1976-03-04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 체결	
공업소유권 보호협정	1978-02-19	공업소유권 보호협정 체결	
이중과세 방지협정	1978-05-13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	
문화협정	1982-07-12	문화협정 체결	
항공협정	1984-03-05	한-영 정부 간 각자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	1985-06-14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원자력협력협정	1991-11-27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해상운송협정	1995-07-10	해상운송협정 체결	
이중과세방지협정	1996-12-30	이중과세방지협정(신협약) 체결	
사회보장협정	2000-08-01	사회보장협정 체결	
영국문화원운영협정	2005-08-29	영국문화원운영협정 체결	
군사비밀보호협정	2010-06-21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	
사람인수협정	2012-06-01	사람인수협정 체결	
항공협정	2015-02-04	항공협정 개정	
조세정보교환협정	2016-11-21	조세정보교환협정	
군사비밀보호협정	2019-03-13	군사비밀보호협정 개정	
한-영 자유무역협정	2021-01-01	한-영 자유무역협정 발효	

한국교민 수

40,770 명 (자료원 : 대한민국 외교부(2021.4. 확인 가능 최신자료))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 문재인 대통령 방영

2018년 10월 19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차 벨기에 방문 중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두 나라 사이의 우호 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평화 정착 등 공동의 관심사에 관해 협의했다. 두 정상은 한·영 정상회담에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에도 무역과 투자 관계를 포함한 양국의 우호협력관계가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메이 전 총리는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약속했다.

2021년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 콘월을 방문했다. 영국 시간 12일 영국 콘월의 카비스 베이에서 열린 G7 초청국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으며, 13일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영국의 존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현안을 비롯해 코로나 19 방역 및 백신, 기후변화 이슈, 해양 오염, 이란 핵 문제, 미얀마 정세 등 글로벌 과제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존슨 총리는 한국과 영국이 다양한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framework)를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도국가 반열로 격상된 위상을 실현했으며, 국제현안 해결에 실질적 기여 및 선진, 개도국 간 가교 역할 수행, 우리 외교의 지평 확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협력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2021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을 위해 영국 글래스고를 방문하였다.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영국으로 이동한 문 대통령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초청으로 COP26에 참석하게 되었다. 대통령은 COP26 총회에서 정상회의의 기초연설과 라운드테이블 연설을 통해 한국의 상향된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선진 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하였다.

경제

◦ 무역작업반 설치

2016년 6월 영국의 브렉시트가 결정됨에 따라 2016년 12월 제3차 한·영 경제 통상공동위원회(JETCO)에서 양국은 새로운 경제 통상관계 정립 및 에너지 신산업 등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양국 통상관계가 브렉시트 이후에도 공백없이 유지되고, 나아가 최소한 한-EU FTA 수준 이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무역작업반(Trade Working Group)을 설치해 한영 FTA 추진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2017년 2월 1차 한·영 무역작업반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무역작업반 운영지침 및 작업계획에 관한 논의를 했고, 2차 회의는 2017년 12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어 브렉시트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한-EU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누리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3차 회의는 2018년 9월 20일 서울에서 개최되어 브렉시트에 관한 진전사항을 공유하고 양국 업계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한영간 무역투자 관계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후 2019년 6월 10일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한 FTA가 원칙적 타결 됐다. 해당 합의는 영국이 EU에서 정식으로 탈퇴하기 전까지 '임시조치(Emergency bridge)' 역할을 한다.

◦ 한·영 FTA 발효

영국이 2021년 1월 1일부로 EU를 떠남에 따라 한영 FTA가 발효되었다. 한영 FTA에는 양국 간 교역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EU FTA 관세양허 수준을 유지하고 동일한 원산지 증명방식을 채택하였다. 발효 연차와 무관하게 한영 FTA의 관세인하 시작 시점은 2011년 7월 1일로 규정하고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 제도를 채택하였다.

문화

◦ 주영 한국 문화원 개원

2008년 1월 30일, 영국 런던의 중심가인 트라팔가 광장 인근 지역에 주영 한국문화원이 개설됐다. 주영 한국문화원은故 백남준씨를 비롯한 한국 출신 작가들의 작품 전시, 한국어 강좌, 한국 음식 체험 등의 행사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 ‘한영 상호교류의 해’ 지정

‘2017~18 한영 상호 교류의 해’는 2016년의 한국과 영국 양국 정부 간 협의를 바탕으로 문화 교류를 통해 양국 간의 친선을 도모하고 중장기 문화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년간 양국에서 83개의 프로젝트와 275개의 문화행사가 열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을 대표하는 예술 및 예술가를 비롯한 한영 신진예술가 간의 협업프로젝트를 선보였다.

3.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성장률 (%)	1.82	1.4	1.24	-9.9	
명목GDP (십억\$)	2,640.07	2,828.83	2,761.59	2,711	
1인당 GDP (PPP, \$)	44,301.43	45,740.76	46,826.97	44,116.9	
1인당 명목 GDP (\$)	39,976.78	42,579.82	41,030.23	40,406	
정부부채 (% of GDP)	85.3	84.7	84.1	84.6	
물가상승률 (%)	2.68	2.48	1.81	0.9	
실업률 (%)	4.43	4.08	3.81	5	
수출액 (백만\$)	441,066	485,616	469,016	398,774	
수입액 (백만\$)	643,498	673,519	689,474	629,509	
무역수지 (백만\$)	-202,432	-187,903	-220,458	-230,735	-
외환 보유고 (백만\$)	138,420.99	160,357.57	158,858.52	157,672.14	
이자율 (%)	0.5	0.75	0.75	0.1	
환율 (자국통화)	0.78	0.75	0.78	0.81	

〈자료원 : IMF, 영국 통계청(ONS), 영국 외교부(FCO), 무역협회〉

경제 동향

2021년 영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4분기에 들어서면서 불확실성이 다소 커지는 상황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21년 2분기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5.5%를 기록하여 1분기의 전 분기 대비 성장률 -1.6%보다 크게 개선되었다. 이는 2분기부터 이동제한 조치가 완화되고 상점과 식당이 정상적으로 영업하게 되면서 민간소비가 많이 늘어난 데 힘입은 바가 크다.

영국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8월 GDP 성장률은 전달대비 0.4% 성장하여 성장세가 다소 주춤해진 것을 알 수 있다. 8월 GDP 성장은

서비스 부문이 주도하여 전달대비 0.3% 성장하였다. 특히 면대면 서비스(Consumer-facing Service)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져 전달대비 1.2%를 기록하였고 여타 서비스 부문은 0.1% 성장하였다. 하지만 2021년 8월 면대면 서비스 산업은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여 2020년 2월을 100으로 볼 때 2021년 8월은 95까지 회복하였다. 하지만 2021년 4월 90, 2021년 5월 93, 2021년 6월 94, 2021년 7월 94로 꾸준히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영국 경제가 2021년 6.8%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영국의 예산 책임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도 2021년 10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영국 경제가 금년에 6.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2021년 9월 이후 영국 경제의 회복세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이 감지되고 있다. 대표적인 요인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교란을 들 수 있다.

2021년 하반기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은 유럽 내 천연가스 재고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유럽지역에 확보된 천연가스 재고가 충분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유럽과 인접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공급이 확대되고 있지 않은 데도 원인이 있다. 이는 러시아의 인위적인 공급제한과 러시아 내 가스 생산 설비 운영 저하 등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한다. 러시아 가즈프롬(Gazprom)은 독일로 연결되는 길이 750마일의 노드 스트림2(Nord Stream2)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완료하였다고 9월에 발표하였으나 2021년 12월 기준 독일은 러시아가 노르스트림2 가스관을 이용해 천연가스를 수출할 수 있도록 아직 허용하지 않았다. 이 가스관이 유럽연합(EU)의 에너지 안보 보장과 관련한 유럽 에너지 법(European energy law)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2021년 10월 말 푸틴 대통령은 국영 에너지 기업 가즈프롬(Gazprom)에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량을 늘리라고 언급하여 향후 가스 공급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21년 12월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인해 갈등이 고조되어 원활한 가스 공급에 애로를 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난방수요 증가, 전력부족 등으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은 물가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데다 유럽 내 천연가스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축소되었다. 네덜란드 흐로닝언(Groningen) 가스전은 조기 해체가 진행 중이며 2022년에 운영이 중단될 예정이다. 노르웨이 가스전 유지보수로 인해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고 영국 가스전 역시 유지보수로 인해 2021년 2분기 생산량이 전년 동기대비 41% 감소하였다. 천연가스를 대체할 LNG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중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여름 중 LNG를 대량 확보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영국의 LNG 수입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 요인으로 해상 풍력발전을 통한 전기생산이 줄어든 데도 일부 원인이 있다. 2021년 여름은 1961년 이후 바람이 유독 적게 불었던 해로 기록되고 있다. 에너지 가격의 갑작스러운 상승은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가계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고 기업들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어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는 영국 경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급망 교란의 대표적인 사례는 2021년 9월 말-10월 초 에 있었던 주유소의 휘발유 공급 부족문제와 건설기자재 가격 상승을 들 수 있다. 2021년 10월 버밍엄(Birmingham)에서 개최된 건설장비 및 기자재 전시회인 UK Construction Week에서 무역관이 만난 다수의 현지 기업들에 따르면 건설기자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수입과 생산 모두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어 단기간에 상황이 개선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장비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중고 장비의 가격도 같이 오르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물류비 상승은 제품 원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판매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어 전반적인 건설 기자재 물가를 올려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2021년 2분기까지 물가상승은 이동제한이 완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수요가 늘어난 데 원인이 있다면 9월 이후부터는 공급사슬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여 비용이 올라간 데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 이 같은 상황은 2022년 1분기까지 지속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트럭 운전기사 부족도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럭 운전기사 부족의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 트럭 운전 면허 시험의 취소, 브렉시트로 인한 EU 지역으로부터의 트럭 운전기사 공급 부족, IR 35로 불리는 세제 개편(Self-employment tax reforms)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28,000건의 HGV(Heavy Goods Vehicle) 시험이 취소된 것으로 추산되어 영국 내에서 트럭 운전기사 채용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브렉시트 이후 고급 기술 이민에 초점을 맞추어 트럭 운전기사 직군에 비자 발급을 확대되지 않아 인근 유럽 지역 트럭 운전기사 확보가 어렵게 되었다. 육상 운송업계에서 세금을 축소하기 위해 트럭 운전사들은 1인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해왔는데 IR 35 개혁으로 인해 영국 국세청에서는 1천만 파운드 이상이 매출 혹은 5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이들 트럭 운전사와의 관계를 기업 대 기업의 계약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 관계로 간주하여 관련 세금 및 국가보험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세제 개혁은 트럭 운전기사들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켜 5,000-10,000명의 트럭 운전기사들이 운송을 그만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국 소매업 협회(British Retail Consortium)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슈퍼마켓 업계에만 15,000명

의 트럭 운전기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인 트럭 운전기사 채용을 위한 비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경제 전망

경제전망	영국 경제는 2021년에 이어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속도는 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11월 영란은행은 2021년 3분기 GDP 성장률을 1.5%로 전망하였다. 이는 국내외 공급망 병목현상 및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면서 민간소비가 약화됨에 따라 GDP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영란은행은 2021년 4분기 GDP 성장률을 전분기대비 1.0%로 전망하면서 공급망 병목현상이 해소되기까지 일정기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은 겨울철 난방비용 증가 등으로 민간소비를 제약하고 에너지 집약 제조업 부문의 생산부진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부정적인 여건에도 2022년 1분기 중에는 코로나 위기 이전(2019년 4분기)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2년도 영국 GDP 성장률은 IMF가 5.0%, 영란은행이 5.0%, 영국 예산책임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은 6.0%로 예상하고 있다.
------	--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59,629,846,165
2	독일	47,125,332,599
3	프랑스	30,919,462,923
4	네덜란드	27,918,391,566
5	아일랜드	25,157,488,201
6	중화인민공화국	21,954,293,202
7	스위스	20,344,952,887
8	벨기에	18,186,809,143
9	스페인	13,844,939,667
10	이탈리아	13,427,275,513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66,478,089,181
2	독일	48,226,076,531
3	스위스	43,727,891,148
4	네덜란드	34,918,688,707
5	프랑스	32,578,956,330
6	아일랜드	28,331,913,600
7	중화인민공화국	28,322,042,238
8	벨기에	19,458,291,011
9	스페인	14,468,303,590

10	이탈리아	14,287,323,742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74,054,040,321
2	독일	47,127,079,577
3	프랑스	31,927,241,087
4	중화인민공화국	30,832,775,384
5	네덜란드	30,762,600,840
6	아일랜드	27,813,662,290
7	벨기에	16,889,692,109
8	스위스	15,796,807,287
9	스페인	14,093,558,873
10	이탈리아	12,958,447,921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58,126,539,316
2	독일	41,679,564,045
3	아일랜드	27,370,187,731
4	네덜란드	25,119,002,396
5	프랑스	23,934,290,652
6	스위스	20,254,072,440
7	중화인민공화국	18,931,998,724
8	벨기에	13,821,314,834
9	스페인	11,586,211,698
10	이탈리아	11,138,541,010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90,262,347,207
2	중화인민공화국	60,247,665,437
3	미국	59,066,435,995
4	네덜란드	51,521,897,779
5	프랑스	36,542,736,671
6	벨기에	32,161,910,796
7	이탈리아	25,008,891,552
8	노르웨이	23,292,934,480
9	스페인	20,754,344,460
10	아일랜드	18,883,791,460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92,872,343,267
2	중화인민공화국	63,556,122,365
3	미국	63,500,877,742
4	네덜란드	56,035,732,309
5	프랑스	37,974,822,794
6	벨기에	34,807,248,429
7	이탈리아	27,216,091,688
8	노르웨이	25,736,491,088
9	캐나다	22,420,052,622
10	스페인	21,725,214,327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86,231,613,214
2	미국	67,280,519,502
3	중화인민공화국	65,998,680,933

4	네덜란드	54,066,825,180
5	프랑스	39,028,448,371
6	벨기에	32,308,788,593
7	이탈리아	26,721,222,523
8	스위스	24,453,328,239
9	스페인	22,161,691,680
10	노르웨이	19,936,250,090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75,532,008,993
2	독일	73,651,296,941
3	미국	58,441,694,076
4	네덜란드	45,845,646,391
5	프랑스	29,449,339,840
6	벨기에	28,508,917,974
7	홍콩	27,351,216,014
8	러시아	24,478,690,787
9	이탈리아	23,726,225,463
10	스페인	18,859,553,928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9,392,814,831
2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16,952,166,952
3	300490	기타	15,846,806,287

4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15,754,879,697
5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5,708,319,691
6	880330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15,162,206,344
7	841112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12,015,693,551
8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9,148,076,963
9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7,386,871,736
10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7,051,496,360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31,878,796,430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7,955,845,446
3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21,332,985,344
4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18,178,853,106
5	880330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15,509,937,426
6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14,917,685,928
7	300490	기타	14,492,286,632
8	841112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13,873,645,526
9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9,786,167,878
10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7,801,188,801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3,765,598,223
2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23,319,627,837
3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7,879,638,893
4	880330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14,939,083,058
5	841112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14,870,404,737
6	300490	기타	13,950,757,119

7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11,538,626,069
8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10,902,135,201
9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9,174,716,967
10	970110	회화 · 데생 · 파스텔	8,702,471,300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21,397,131,190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7,824,220,963
3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6,111,947,675
4	300490	기타	14,619,282,645
5	880330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9,735,475,244
6	841112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9,653,593,317
7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8,297,865,875
8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6,244,636,167
9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5,547,157,369
10	220830	위스키류	5,015,304,941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34,930,855,678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1,033,752,283
3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16,975,416,840
4	271019	기타	15,131,365,996
5	300490	기타	14,733,367,660
6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3,494,215,100
7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0,450,931,404
8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10,321,140,596

9	271121	천연가스	9,873,758,291
10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9,062,928,079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6,347,854,676
2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25,530,518,012
3	271019	기타	19,868,756,242
4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4,038,951,575
5	300490	기타	13,635,407,649
6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13,249,282,422
7	271121	천연가스	12,500,685,545
8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1,160,572,069
9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10,902,481,951
10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9,753,564,192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70,941,313,915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4,594,164,616
3	271019	기타	18,086,039,703
4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2,974,895,645
5	300490	기타	11,806,027,436
6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11,622,485,005
7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0,618,044,621
8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10,410,027,151
9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9,967,351,447

10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9,553,671,436
----	--------	---------------------------------	---------------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87,951,996,560
2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15,800,142,859
3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5,608,773,815
4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3,365,391,660
5	300490	기타	12,288,680,401
6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0,139,914,212
7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9,131,733,546
8	271019	기타	8,485,505,317
9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7,624,233,596
10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7,451,138,495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7	8,122	6,319	1,803
2018	6,359	6,809	-450
2019	5,515	4,169	1,346
2020	4,467	4,370	97
2021	4,926	4,785	141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0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4	전기자동차	643	0	642
2	7411	승용차	775	544	230
3	8121	무선전화기	365	0	364
4	1113	백금	209	149	60
5	7251	건설중장비	107	2	104
6	7420	자동차부품	161	48	113
7	7472	항공기부품	251	112	139
8	2140	합성수지	86	60	25
9	6134	아연도강판	97	0	96
10	8352	축전지	175	4	171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1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4	전기자동차	820	0	820
2	7411	승용차	742	323	419
3	8121	무선전화기	423	0	423
4	1113	백금	417	468	-51
5	7251	건설중장비	198	2	196
6	7420	자동차부품	177	36	141
7	7472	항공기부품	162	101	61
8	2140	합성수지	141	42	99
9	6134	아연도강판	117	0	117
10	8352	축전지	114	2	112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0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10	원유	0	383	-384
2	1113	백금	209	149	60
3	7411	승용차	775	544	230
4	2262	의약품	22	391	-370
5	0157	주류	1	126	-126
6	8151	계측기	7	139	-133
7	7111	원동기	18	126	-108
8	7472	항공기부품	251	112	139
9	2261	농약	4	92	-89
10	8155	분석시험기	11	73	-62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1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10	원유	0	1,041	-1,041
2	1113	백금	417	468	-51

3	7411	승용차	742	323	419
4	2262	의약품	9	307	-298
5	0157	주류	1	124	-123
6	8151	계측기	6	118	-112
7	7111	원동기	15	103	-88
8	7472	항공기부품	162	101	61
9	2261	농약	3	82	-79
10	8155	분석시험기	11	69	-58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수출 유망품목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면류		
HS Code	190230	수입액('20/US\$백만)	354.8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0/US\$백만)	17.3
선정사유	현지에서 한국 음식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한국 면류 식품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음 2015-20년 이후 우리나라의 면류(MTI 코드 016400)對英 수출은 매년 2자리 수 상승세를 시현 중 *20%('15)→19.1%('16)→23.5%('17)→16.6%('18)→10.7%('19)→24.2%('20)→5.8%('21.8월)		
시장동향	영화 등을 통해 한국 식품을 접하게 되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한국 면류 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15개 이상의 한국기업이 수출하고 있어 對英 수출 저변도 비교적 확대된 상황임		
경쟁동향	아시아 식품으로서 인지도는 아직은 중국, 일본, 태국 식품에 비해 낮은 상황임		
진출방안	현지 대형 유통망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벤더를 발굴하여 협업하는 것이 필요 온라인 마켓 확대에 따라 한류제품을 온라인으로 유통하고 있는 업체와 협업하여 구독 서비스 등 새로운 방식의 사업 모델 추진도 필요		
품목명 2	화장품		
HS Code	330499	수입액('20/US\$백만)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0/US\$백만)	
선정사유	2019년에 화장품 수출세가 둔화하였으나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유통 확대에 힘입어 화장품 시장이 성장세를 시현 2017-18년 매년 70% 이상의 수출증가세 시현 이후 수출증가세가 다소 둔화하였으나 2021년에 다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 77.2%('17)→76.1%('18)→11.9%('19)→28.4%('20)→66.2%('21.8월)		
시장동향	친환경, 비건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개성과 특성이 뚜렷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		
경쟁동향	전통적으로 시장을 선도해가는 프랑스 및 일본 제품과 경쟁이 예상 매년 300개 이상의 한국기업이 영국에 수출하고 있어 우리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음		

진출방안	K뷰티의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제품이 필요 구독 서비스, 팝업스토어, 온라인 판매 등 한국 화장품의 주요 소비 계층인 젊은 층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전략이 필요 업계에 따르면 수출에 성공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출 규모를 유지하기 쉽지 않으므로 현지 마케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함		
품목명 3	스마트기기 액정보호필름		
HS Code	702000	수입액('20/US\$백만)	160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0/US\$백만)	1.7
선정사유	스마트폰 사용자는 보호 케이스와 액정 보호 필름을 구매하여 스마트폰을 가능한 상처 없이 오래 사용하기를 희망 신형 스마트폰 모델이 꾸준히 출시되고 있어 휴대폰 보호 용품에 대한 수요도 지속 유지		
시장동향	플라스틱 재질보다는 강화유리 제품에 대한 선호가 커지고 있음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유통이 확대되고 있음		
경쟁동향	액세서리 성격의 제품으로 가격 경쟁이 심한 품목으로 중국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음		
진출방안	소비자들은 액정보호필름의 품질 및 가격을 모두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이에 품질에만 집중하는 고급화 전략보다는 가격 대비 성능에 초점을 맞춘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 상대적으로 가격보다 품질이 중요시되는 태블릿 PC 시장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음		
품목명 4	트럭 냉장냉동 설비		
HS Code	841869	수입액('20/US\$백만)	211.7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0/US\$백만)	1.0
선정사유	코로나 19 이후 의약품 및 식품의 배송이 증가하였고, 이동 제한 및 재택근무의 증가로 식재료의 온라인 구매가 늘어남 이는 신선 제품을 배송하는데 필요한 냉장냉동 트럭의 수요 확대로 이어짐		
시장동향	영국의 냉장냉동 트럭 제조 기업은 코로나19 관련 수요 확대를 기회로 관련 장비 생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업계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이후 코로나19 이전의 생산 수준을 회복했다고 함		
경쟁동향	영국 및 유럽에서 생산된 냉장냉동 설비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는 품질뿐 아니라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판매 후 관리와 고객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임		
진출방안	영국 제조사의 사후관리 역량을 활용하여 고객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영국의 냉장냉동차 제조사와 파트너십을 통한 진출이 바람직		

품목명 5	전기자동차		
HS Code	870380	수입액('20/US\$백만)	3,868.5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0/US\$백만)	490.4
선정사유	2030년 이후 영국 내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전기자동차로 대표되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확대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MIT 코드 741400)의 對英 수출은 2018-20년간 매년 세 자릿수 증가를 시현 * 241.2%('18)→127.7%('19)→624.3%('20)→56.5%('21.8월)		
시장동향	닛산의 경우 현지 배터리 생산 확대, JRL의 경우 2024년까지 전기차 생산 등으로 현지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 영국자동차산업협회(SMMT)에 따르면 '21.9월 기준 영국 전기차 등록은 전년 동기대비 87.9% 증가		
경쟁동향	닛산, 테슬라, 아우디 등 주요 자동차 브랜드의 전기자동차가 이미 시장에 다수 진출해 있음		
진출방안	영국 정부는 전기자동차 산업의 공급사슬 역량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현지 배터리 혹은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거점 구축 추진		
품목명 6	건설장비		
HS Code	8429	수입액('20/US\$백만)	988.6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0/US\$백만)	51.2
선정사유	코로나19의 영향에서 회복되면서 영국 건설시장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건설장비(MIT 코드 725190) 對英 수출도 '21.8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147.1% 증가 * -16.1%('18)→-41.6%('19)→-3.9%('20)→147.1%('21.8월)		
시장동향	영국의 건설장비 제조 기업 J사에 따르면 '21.9월 기준 향후 12개월 치 주문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밝힐 만큼 건설장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건설장비 수요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인프라 공사 확대와 농업 부문의 장비 수요가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		
경쟁동향	JCB, John Deere, Caterpillar 등 세계적인 건설장비 브랜드가 이미 영국에 진출해 있음		
진출방안	고장이 없는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는 것에 더해 현지 수입유통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고객 맞춤형 사후관리 체계도 구축하는 것이 필요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에듀테크
-------	------

선정사유	유치원-고등학교까지의 교육기관이 3만 2천 개가 넘어 교육기자재 관련 수요가 상존 코로나19 및 양질에 대한 교육에 대한 요구로 신기술 기반 교육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증대
시장동향	코딩교육, 외국어 교육 등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을 통해 기존의 콘텐츠를 입체화하는 사업도 확장
경쟁동향	콘텐츠, 수업 지원 솔루션, 과학교육 분야 관련 역량 있는 영국 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진출방안	교육기관의 구매 관행을 잘 파악하고 우수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현지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한 진출이 유리 에듀테크 산업에서 고객 요구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중요한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영국의 사업 친화적인 여건을 고려 현지 법인 진출도 검토 필요
품목명 2	핀테크
선정사유	영국은 전통적으로 핀테크 분야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고 관련 사업이 발달할 수 있는 우수한 산업 생태계를 보유
시장동향	영국 정부는 핀테크 사업을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으로 보고 규제 완화, 자금 지원 등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 이 같은 육성 정책을 바탕으로 몬조, 리볼트 등 8개 내외의 핀테크 유니콘이 존재
경쟁동향	영국에는 1,600개 이상의 핀테크 기업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 자사만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서비스 공급이 필요
진출방안	진출 초기에는 현지 금융기관 등이 운영하는 주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투자자들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관심이 크고 기술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차별화되는 비즈니스 콘셉트 마련이 중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솔루션의 경우 관련 업계 네트워킹을 통한 신뢰 관계 구축이 필요
품목명 3	디지털 헬스
선정사유	영국 공공 조달의 약 32%를 의료분야가 차지 의료 솔루션 최대 수요기관인 영국의 공공의료기관 NHS는 의료비 절감을 위해 신기술 도입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음

시장동향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진료가 확산되어 Telehealthcare 시장이 성장 의료비 절감에 직접 기여 가능한 환자 모니터솔루션과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영국 의료기관은 중앙집중식 구매보다 기관별 구매가 일반화되어 있어 의료기관 납품 절차가 복잡하여 영국 스타트업들도 스케일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함
경쟁동향	영국은 물론 미국, 독일, 북유럽 등 주요 선진국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함 스타트업 사업 여건이 좋은 만큼 현지에 진출하여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자 하는 기업이 증가
진출방안	현지 의료기관과 네트워크가 있는 현지 기업과의 협업이 필요하며 혁신 의료 솔루션의 공공의료기관 납품을 지원하는 AHSN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우리 기업의 IT 기술과 영국의 발달한 인터넷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필요
품목명 4	전자상거래
선정사유	영국은 유럽 내 최대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유 수도 런던은 문화 다양성과 연결성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도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인터넷 기반 사업을 수행하기에 용이한 환경 제공
시장동향	코로나19로 인해 전자상거래 시장이 더욱 성장 화장품, 의류 등 기존 소비재뿐 아니라 중고차, 렌터카, 음식 배달에 더해 최근에는 식료품 배달에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도입되었음
경쟁동향	대형유통망, 소형유통망, 배달, 특수서비스 등 세부 사업별로 다양한 전자상거래 업체가 존재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대기업들은 광고홍보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시장을 선점하려고 노력 중 중소기업의 경우 특색 있는 제품을 적은 비용으로 유통할 수 있는 경로로 전자상거래를 활용하고 있어 차별화되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

진출방안	전자상거래 플랫폼별 특성을 파악하여 자사에 가장 효과적인 채널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 최근에는 물류 서비스가 발달함에 따라 영국에 온라인 쇼핑몰을 설치하지 않고 한국에서 아마존과 같은 전자상거래 마켓플레이스나 자사 플랫폼을 통해 한국에서 직배송하는 사업 모델도 증가 이럴 경우 영국 부가가치세, 관세 등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시작 단계부터 적정 준비가 필요
품목명 5	해상풍력발전 단지 운영
선정사유	영국은 2030년까지 해상풍력발전 용량 40GW를 목표로 해상풍력산업을 육성 중임 외국기업에도 해상풍력발전 단지 사업권을 차별 없이 불하하고 있어 사업 참여 기회가 있음
시장동향	2001년부터 4차례에 걸쳐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 등 다수의 외국기업이 참여 주로 유럽의 전기가스 공급 사업에 종사하는 유틸리티 기업들이 종사하였으나 최근에는 대형 석유기업들도 사업에 참여 중
경쟁동향	최초 사업권 입찰 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과 기존 사업자로부터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최초 입찰 시에는 대형 다국적 유틸리티 기업 혹은 석유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경쟁을 해야 함 중국 및 일본 기업들도 유럽 혹은 영국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해상풍력발전단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진출방안	영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입찰절차에 따라 해상풍력 산업 분야에 역량 있는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 사업이 대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기업 단독 사업 진행은 쉽지 않으며 파이낸싱에 대한 준비도 필요

4.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영-칠레 AA	칠레	2019-01-30	2021-01-01	
영-동남아프리카 (ESA) EPA	모리셔스, 세이셸, 짐바브웨	2019-01-31	2021-01-01	
영-페로 제도 FTA	페로 제도	2019-01-31	2021-01-01	
영-리히텐슈타인 TA	리히텐슈타인	2019-02-11	2021-01-01	
영-스위스 TA	스위스	2019-02-11	2021-01-01	
영-이스라엘 TPA	이스라엘	2019-02-18	2021-01-01	
영-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TPA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2019-02-18	2021-01-01	
영-태평양 EPA	피지,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 제도	2019-03-14		(피지, 파푸아뉴기니 : 잠정적용 / 사모아, 솔로몬 : 브리징메커니즘)
영-카리포럼 (CARIFORUM) EPA	앤티가 바부다, 바베이도스, 벨리즈, 바하마, 도미니카 연방, 도미니카 공화국, 그레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수리남,	2019-03-22		(발효전, 잠정 적용)
영-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상품 무역협정)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2019-04-02		(발효 전, 잠정 적용)
영-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Andean countries) TA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2019-05-15	2021-01-01	(콜롬비아 발효 전- 브리징 메커니즘)
영-중앙아메리카 AA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2019-07-18	2021-01-01	
한-영 FTA	한국	2019-09-19	2021-01-01	
영-레바논 AEA	레바논	2019-09-19	2021-01-01	
영-튀니지 AA	튀니지	2019-10-04	2021-01-01	
영-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2020-10-08	2021-01-01	

영-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SACUM) EPA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2019-10-09	2021-01-01	
영-조지아 SPA	조지아	2019-10-21	2021-01-01	
영-코트디부아르 EPA	코트디부아르	2020-10-15	2021-01-01	
영-일본 CEPA	일본	2020-10-23	2021-01-01	
영-모로코 AEA	모로코	2019-10-26		(발효 전, 잠정 적용)
영-코소보 PTCA	코소보	2019-11-03	2021-01-01	
영-요르단 AA	요르단	2019-11-05	2021-05-01	
영-북마케도니아 PTCA	북마케도니아	2020-12-03		(발효 전, 잠정 적용)
영-이집트 협정	이집트	2020-12-05	2021-01-01	
영-케냐 EPA	케냐	2020-12-08		(발효 전, 브리징 메커니즘)
영-캐나다 ATC	캐나다	2020-12-09	2021-04-01	
영-싱가폴 FTA	싱가폴	2020-12-10	2021-01-01	
영-멕시코 TCA	멕시코	2020-12-15	2021-06-01	
영-EU TCA	EU	2020-12-30	2021-05-01	
영-몰도바 SPTCA	몰도바	2020-12-24		(발효 전, 잠정 적용)
영-터키 FTA	터키	2020-12-29		(발효 전, 잠정 적용)
영-베트남 FTA	베트남	2020-12-29		(발효 전, 잠정 적용)
영-알바니아 TCA	알바니아	2021-02-05	2021-05-01	
영-가나 ITPA	가나	2021-03-02		(발효 전, 잠정 적용)
영-카메룬 EPA	카메룬	2021-03-09	2021-07-19	
영-세르비아 PTCA	세르비아	2021-04-17		(발효 전, 잠정 적용)

〈자료원 : 영국 정부 웹사이트〉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	--------	--------	----

영-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 반자 협정 CPTPP	호주, 캐나다, 일본, 멕 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페 루	2021.6.22 공식 협상 시작	
영 - 미국 무역협정	미국	협상중	상호인정협약(MRA) 체결
영-호주 FTA	호주	협상중	상호인정협약(MRA) 체결
영-뉴질랜드 FTA	뉴질랜드	협상중	상호인정협약(MRA) 체결
영-알제리	알제리	협상중	
영-보스니아, 헤르체고비 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 나	협상중	
영-몬테네그로	몬테네그로	협상중	

<자료원 : 영국 정부 웹사이트>

5.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영국의 수입 금지 및 제한은 수입 통제(Import controls)에 의해 이뤄진다. OGIL(Open General Import Licence)은 국제통상부(DIT)에서 운영하는 국가 무역 통제 조치이며 규정한 예외사항을 따라 모든 상품을 영국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 OGIL에 따른 수입 통제 대상 상품은 총기, 대인 지뢰, 특정 핵 및 화학 제품이다. 대부분의 상품을 영국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면허가 필요하지 않지만 일부 품목은 국가 또는 UN 수준에 따른 수입 허가가 필요하다. 수입 허가는 DIT의 ILB(Import Licensing Branch)에서 발급한다.

금지 및 제한 상품과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 [https://www.gov.uk/guidance/import-controls#:~:text=The%20OGIL%20\(Open%20General%20Import,anti%2Dpersonnel%20mines](https://www.gov.uk/guidance/import-controls#:~:text=The%20OGIL%20(Open%20General%20Import,anti%2Dpersonnel%20mines)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1) 인증

(1) UKCA 마크

◦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독자적 규제체제를 갖추게 되면서 영국에 공급되는 제품에는 기존의 CE마킹을 부착하는 대신 영국시장용 제품 마킹인 UKCA(UK Conformity Assessed)를 부착해야 한다.

◦ UKCA 마킹은 영국의 EU 최종 탈퇴 이후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영국 적합성평가로 GB(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시장에 출시하는 공산품에 적용된다.

◦ 기존에 CE 마킹이 요구되던 상품을 영국에 수출하고자 한다면 UKCA 마킹 또한 준비해야 한다. 기존에 UK 기반 인증기관으로부터 CE를 받았다면 UKCA인증으로 자동 전환이 가능하므로 현재의 인증 기관에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

◦ 한편, 아일랜드와 국경이 맞닿아있는 북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의해 GB(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시장과는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 UKCA 마크는 2021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지만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응 기간을 제공해 CE마크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영국시장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해당 날짜 이전에 UKCA 마크에 대한 준비를 마칠 것을 권장한다.

(2)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으로 인간과 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및 화학물질의 수준을 제어하도록 규제한다.

◦ 해당 제품은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 규정 준수를 입증하는 지원 기술 문서(technical file)
- 적합성 선언
- 필수 정보 표시

- GB 및 북아일랜드 시장에 적합한 적합성 표시를 적절하게 표시
 - 카드뮴, 납, 수은, 벤질 부틸 프탈레이트, 6가 크롬 등 다음의 유해 물질이 규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생산관리를 평가해야 한다.

(3) UK REACH

-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화학물질 관리제도이다.
 - 영국과 EU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판매, 유통하는 경우에 UK REACH와 EU REACH를 모두 따라야 한다. 영국 REACH는 기존 EU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의 목표와 원칙을 유지한다.
 - 따라서 영국에 화학물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시장에 접근해야 하며, 동물실험, 근로자를 위한 정보 접근, 예방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https://www.gov.uk/guidance/how-to-comply-with-reach-chemical-regulations>

(4) SCPN(화장품 인증)

- 화장품을 영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지정 및 영국 화장품 인증이라 불리는 SCPN((Submit a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절차를 위해서는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
 -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내 제품 출시를 위한 영국 소재 책임자(RP) 지정
 - 제품정보파일을 영어로 관리해 요청이 있을 시 제공된 영국 주소로 집행당국 및 시장 감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RP의 정보를 라벨링에 포함해야 함
- SCPN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화장품 카테고리 및 이름
 - 책임자(RP) 이름
 - 제품정보파일(PIF) 보관 주소
 - 긴급시 담당자 연락처
 - 유사시 신속하고 적절한 의학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프레임 구성
 - 규정(EC) No 1272/2008에 따른 카테고리 1A 또는 1B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CMR)으로 분류된 물질의 이름 및 CAS(Chemicals Abstracts Service) 혹은 EC 번호
 - 라벨 원본 및 해당 포장 사진
- 나노물질 함유 제품을 GB 시장에 신규로 출시할 때에는 위에서 언급된 정보와 더불어 아래의 정보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나노물질 형태의 물질 존재 확인
 - 규정(EC) No 1223/2009 부속서 2~2에 대한 전문의 2번 항목에 명시된 화학명(IUPAC) 및 기타 물질을 설명하는 나노물질 식별
 - 나노물질의 예측 가능한 노출 조건

2) 기타 인증제도

(1) 에코 라벨

-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인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부착이 의무는 아니다. 에코 라벨은 1993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2019년 7월 현재 25개 품목군에 관한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 에코 라벨 대상 품목
 - 개인 용품(흡수력 있는 위생용품, 세정 용품), 세제(경질 표면 세제, 산업용 식기세척기용 세제, 다목적용 세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식기 세제, 세탁세제, 산업용 세탁세제), 의류(섬유제품, 신발), Do-It-Yourself(페인트 및 바니쉬), 전자제품(TV, PC 및 노트북), 바닥덮개(경외장재, 목재마루), 가구(가구, 매트리스), 정원용품(생육배지 및 토질향상제), 윤활유, 종이제품(재활용용지, 인쇄용지, 신문용지, 화장지), 관광 숙소

(2) KITE 마크 제도

-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안전성 관련 인증제도로, 영국 기준원(British Standard Institution)에 의해 고안, 발급되고 있으며,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안전성, 내구성 등이 중요시되는 자동차, 기차, 창문, 소화기, 맨홀 등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된다. 영국인의

88%가 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기업의 93%가 KITE 마크를 최고의 안전성 관련 인증으로 간주하고 있다.

- 대상 품목

- 아동 안전 SW, 건설 장비 및 자재, 전기, 에너지, 음식보존 장비, 의료기기, 개인보호장비, 교통, 창문 등

- 취득 절차

- <https://www.bsigroup.com/en-GB/kitemark/>에서 제품을 선택하여 온라인 신청하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을 거쳐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KITE 마크 로고를 제품과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한, KITE 마크 공식 사이트에 인증회사로 등재된다.

* 영국은 2021년 1월 1일 EU를 최종 탈퇴하여 독자적 인증사항, 규제사항들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작성 시점에 따라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TBT

기술장벽은 EU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유럽 내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하고 있으며 관련 규제를 지속 심화하고 있다. 영국은 2021년 EU를 탈퇴하면서 EU의 안전 및 보건 기준, 규정 등을 대부분 영국 독자적 규정으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장난감 안전 규정

장난감을 GB(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에 출시할 때 충족해야 하는 필수 안전 요구사항을 명시한다.

- 일반적인 안전 요구사항

- 장난감을 만들 때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포함, 장난감은 어린이의 행동을 염두하여 의도한 대로 또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사용될 때 사용자나 제 3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위협해서는 안됨

- 사용자 및 감독자의 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특히 36개월 미만의 어린이 또는 특정 연령 그룹이 사용하도록 고안된 장난감에 적용됨

- 장난감 사용과 관련된 위험 및 위험에 대한 정보와 이를 방지하는 방법을 명확하고 쉽게 읽을 수 있으며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방식으로 영어로 표시해야 함

- 위 정보는 경고라는 단어가 앞에 와야 하며 장난감이나 포장에 부착된 라벨 및 함께 제공되는 설명서에 표시되어야 함

- 특정 안전 요구사항

- Product Safety and Metrology etc. (Amendment etc.) (EU Exit) Regulations 2019에 명시된 특정 안전 요구사항이 있으며 여기에는 물리적 및 기계적 특성, 가연성, 화학적 특성, 전기적 특성, 위생요건 및 방사능과 관련된 위험이 포함됨

- 링크(<https://www.legislation.gov.uk/ukdsi/2019/9780111180402/schedule/15>)에서 포함되지 않아야 할 알레르기성 향, 구성 요소의 용량,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장난감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한도 등을 확인할 수 있음

2) 영국에서의 식품 접촉 물질 출시

- GB(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시장에 플라스틱 용기 등과 같은 식품 접촉 물질을 출시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플라스틱 단량체 및 첨가제(<https://www.legislation.gov.uk/eur/2011/10/contents>)

- Active / Intelligent 물질(<https://www.legislation.gov.uk/eur/2009/450/contents>)

- 재활용 플라스틱 공정용(<https://www.legislation.gov.uk/eur/2008/282/contents>)

- 재생 셀룰로오스 필름용(<https://www.legislation.gov.uk/eudr/2007/42/contents>)

- 영국은 2022년 4월 1일부터 플라스틱 포장세를 도입한다.

- 영국의 플라스틱 포장 제조업체, 플라스틱 포장 수입업체, 이들의 고객,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새로 도입되는 세금에 영향을 받는다.

- 플라스틱 포장에 30% 이상의 재활용 플라스틱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세금이 적용된다.

3) 화장품 원료 규제 강화

○ 2020년 2월 27일부로 자외선차단제, 염색, 샴푸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EU는 피부와 직접 닿는 화장품 물질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페니페놀 물질의 최대허용 농도제한(11월) 및 일부 메리골드 물질 사용을 금지(7월)한 바 있다. 올해부터 제한이 강화된 물질은 아래와 같다.

- (사용금지 물질)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황산염 및 염산염(2-Chloro-p-Phenylenediamine, 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

○ 염색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물질의 경우, 지금까지 마스카라와 아이브로우 제품에서 최대 4.6%까지 허용되어 왔다. 유럽 과학위원회(SCCS;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는 상기 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해당 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고, 지속 사용 시 잠재적 위험성이 커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황산염 및 염산염(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의 경우,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과 기본적인 물질구조가 동일하므로 이들도 같이 금지해야 하며, 금지제품에 염색약도 추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집행위는 이 같은 과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스카라, 아이브로우 및 헤어 염색약 내 해당물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 (허용량 제한) 클림바졸(Climbazole) : 비듬방지제에 주로 사용되는 크림바졸의 경우, 0.5% 내에서 사용이 허용되어 왔으나 과학위원회는 평가 후, 기존 농도로는 인체에 유해하므로 제품에 따라 아래와 같이 0.2~0.5% 이내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 로션, 크림, 발 전용 제품 : 최대 0.2%까지

- 샴푸: 0.5%까지만 안전(비듬샴푸의 경우에는 2%까지 허용)

○ 화장품 성분에 대해 새로운 제한기준이 마련되면 이미 제조된 제품의 EU 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생산 중이던 화장품들은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재생산해야 하는 등 생산라인에도 큰 차질을 받게 된다. 최근 역내 K-뷰티 열풍에 힘입어 EU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보다 주시해 우리 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타

영국 2021년 1월 1일 EU를 최종 탈퇴하면서 독자적으로 인증사항, 규제사항들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작성 시점에 따라 내용이 상이할 수 있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영국은 2021년 1월 1일 EU를 최종 탈퇴하면서 EU의 공통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대체하는 영국 글로벌 관세(UKGT)를 도입했다. UKGT는 영국 경제의 요구에 맞게 조정되어 영국 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UKGT는 개발도상국 GSP나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교역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외의 국가에 적용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한-영 FTA가 적용된다.

○ 글로벌관세 주요 내용

1) 관세 단순화 및 관세율 제로 조정

- 기업이 이해하고 사용하기 쉽도록 관세율표를 단순화하고 비교적 낮은 관세(2% 이하) 상품의 경우 0%로 적용한다. 또한 많은 상품의 소수점 이하 세율을 조정(인하)

- 영국 내 생산이 없거나 생산에 제한이 있는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탄소 포집 및 순환 경제 촉진을 위한 100개 이상의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2) 관세 유지

- 영국 산업 보호를 위해 농업, 자동차, 어업 부문과 양고기, 소고기 및 가금류 등의 농산물, 세라믹 상품의 경우 영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관세가 유지

3) 의약품 및 의료기기

- 대부분의 의약품 및 인공호흡기를 포함한 의료기기에는 무관세가 적용
-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제품 중 일부에는 관세가 유지될 예정이나 일시적으로 무관세를 적용

관세율 알아보는 법

영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UK Global Online Tariff 툴을 활용(링크: <https://www.trade-tariff.service.gov.uk/sections>)해 관세율을 검색할 수 있다.

8자리 HS코드를 알고 있다면 위 링크에 코드를 입력하거나 HS 코드를 모른다면 상품을 영어로 검색해 해당하는 품목을 확인하고 적용되는 관세를 찾으면 된다.

검색을 완료하면 Overview 탭을 통해 VAT와 제3국으로부터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이 확인 가능하다. Overview 탭 우측에 Import(수입) 탭을 클릭한 후 국가를 선택하여 국가별 관세 역시 확인할 수 있다. Export(수입) 탭도 같은 방법으로 영국에서 해당 국가로 수출 시 적용되는 관세를 확인할 수 있다.

6. 통관 · 물류

가. 물류정보

물류정보

1) 주요 무역항 및 물동량

◦ 주요 무역항: 2020년 기준 화물 처리량 기준으로 영국의 주요 항구로는 London, 잉글랜드 동부에 위치한 Grimsby & Immingham, 잉글랜드 남서부 콘월 지역에 소재한 Milford Haven, 잉글랜드 서해안의 Liverpool, 잉글랜드 북동부의 Tees & Hartlepool, 잉글랜드 남해안의 Southampton 등이 있다. 2020년 기준 Liquid Bulk 화물의 총 물동량은 1억 6,56만 톤으로 전체 화물의 39%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Liquid Bulk 화물은 원유, 석유제품, 액화가스 등이 주를 차지하고 있다. Dry Bulk 화물의 총 물동량은 760만 톤이었으며 주로 광물, 농업제품, 석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컨테이너 화물의 총 물동량은 970만 TEU였으며 영국의 Felixstowe 항구에서 전체 컨테이너 화물의 36%를 처리하였다.

◦ 주요 무역항별 물동량: 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영국 주요 무역항별 물동량은 London 항 4,740만 톤, Grimsby & Immingham 항이 4,560만 톤, Milford Haven 항이 3,360만 톤, Liverpool 항이 3,100만 톤이었다.

2) 주요 공항 및 물동량

◦ 주요 공항: 영국의 주요 국제공항은 주요 대도시에서 위치하고 있는데 그 중 방문객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공항으로는 런던 인근의 히드로(Heathrow) 국제공항, 개트윅(Gatwick) 국제공항, 스탠스테드(Stansted) 국제공항, 루톤(Luton) 국제공항 등이 있고 잉글랜드 중부에 소재한 맨체스터(Manchester) 공항,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에딘버러(Edinburgh) 공항도 이용객이 많다.

◦ 주요 공항 물동량: 2019년 기준 영국 주요 공항 물동량은 히드로 국제공항이 158.7만 톤, 이스트 미들랜드 국제공항이 33.6만 톤, 스탠스테드 국제공항이 22.4만 톤, 개트윅 국제공항이 11만 톤, 맨체스터 공항이 10.8만 톤으로 영국 내에서 연간 10만 톤 이상을 처리하는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히드로 국제공항은 2019년 기준 연 47.5만 회의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으며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수는 8천 89만 명이다. 개트윅 국제공항의 경우 항공기 운항 28만 회, 공항 이용 승객수 4천 658만 명이다. 잉글랜드 중부의 맨체스터 공항의 경우 항공기 운항 19.4만 회, 공항 이용 승객수 2천 936만 명이다.

3) 유의사항

2020년과 2021년 1분기에는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내 수입물품 확보수요가 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육상 운송 차질 및 항만 운영 지연 등으로 인해 물동량이 화물 적체가 심화되고 물류 가격이 상승하였다. 2021년 6월 기준 영국의 항만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3% 정도 줄어들어 4억 3,210만 톤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2분기만 본다면 전년 동기 항만 물동량은 13% 증가하여 1억 1,070만 톤을 기록하였다. 특히 영국으로 들어오는 화물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7,480만 톤을 기록하였다. 이는 2021년 2분기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과 흐름을 같이 한다.

4) 기타 참고사항

영국의 국제 물류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은 석유 제품(Oil product)이다. 석유제품의 주요 교역 국가로는 네덜란드, 벨기에, 러시아, 미국, 아일랜드, 스웨덴 등이 있다. 이들 국가들은 주로 EU 지역 소재하고 있어 영국과의 물동량이 가장 큰 지역은 EU 지역이다. 특히 네덜란드와 비중이 높고 2020년 기준 전체 EU 화물량의 30%, 전체 국제 화물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영국 해상운송 운임이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어 현지 기업들은 2022년 물류비가 20~3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 일반 통관 절차 - GB로 시작하는 EORI 넘버 확인 - 자국에서 수출신고 여부 확인 - 세관 처리를 위해 세관 대리인이나 운송업체를 고용하거나 직접 수행할지 결정 - 수입 신고서에 상품 코드 포함 - 상품 가치 책정 - FTA 적용 시 관세 혜택 여부 확인 - 상품에 대한 라이선스 또는 인증 필요 여부 확인 - 라벨링, 마킹, 마케팅 규칙 확인 - 세관 통관 진행 - VAT 등록 기업은 VAT 환급 진행 (수입 VAT 증명서 C79 필요) - 수입 VAT 증명서(C79)를 포함한 송장 및 모든 세관 서류 기록을 보관해야 함 * 영국(UK) 및 EU 외 국가로부터 북아일랜드로 수입하는 경우, XI로 시작하는 EORI 넘버 필요 여부 확인 ○ 약식 통관(Simplified Declarations)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를 수 있다. - 상품에 대한 약식 통관 사용 제한 여부 확인 - CHIEF 시스템에 약식 신고서 제출 - 보충신고서(Supplementary Declaration) 제출 - 최종 보충 신고서 제출 * 약식 통관 전에 EORI 넘버, HMRC 승인, CHIEF 배지(badge), CHIEF 시스템 사용 소프트웨어, 관세 및 부가가치세(VAR) 납부 연기 계정 확인해야 함 ○ 직접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통관 절차 (통관 절차가 복잡하므로 운송업자나 세관 대리인 고용 권고) - GB로 시작하는 EORI 넘버 발급(북아일랜드의 경우 XI로 시작하는 넘버 필요할 수 있음) - 동식물 제품, 고위험 식품, 사료, 의약품, 섬유, 화학제품, 총기류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자로 등록해야 함 - 상품에 대한 라이선스 또는 인증서가 필요한지 확인 - 라벨링, 마킹, 마케팅 규정 확인 - 상품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 진행 - 수입 신고서 제출 (EU에서 GB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6개월 동안 신고 연기 가능) - VAT 및 관세 납부(신고서 제출 후 HMRC에서 지불해야 할 금액 안내) - 통관 완료 ○ 우편 배송 - 온라인 구매, 해외에서 구매 후 영국으로 배송, 선물 등이 경우가 이에 해당 - 영국(UK) 외 국가에서 GB(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로 보내는 경우와 영국(UK) 및 EU 국가 외에서 북아일랜드로 보내는 경우에는 VAT, 관세, 소비세 지불 의무 발생 - 부가세: £ 135 이하인 경우 판매 시 적용되며, £ 135 이상인 경우 수입 시 부과 - 관세: £ 135를 초과하는 상품은 관세 지불 대상임 - 단, £ 39 이하 선물에는 관세, VAT가 부과되지 않음,
-----------	---

통관 시 유의사항

- 식물을 영국(GB) 내에서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물여권(Plant Passports)이 있어야 하며 이는 동식물 보건국(APHA)로부터 승인을 받는다.
 - 스코틀랜드의 경우 SASA(Science and Advice for Scottish Agriculture)의 확인이 필요하며 북아일랜드의 경우 DAERA(Department of Agriculture, Environment and Rural Affairs)의 확인이 필요하다.

- 라이선스 의약품 수입 시 면허 신청이 필요하다.
 - 도매(Wholesale), 제조업체(Manufacturer), 마케팅 승인(Marketing Authorisation, MA) 중 1개 이상을 신청해야 한다.
 - 의약품 및 의료제품 규제기관(MHRA)는 도매 및 제조업체 라이선스 발급을 담당하며 모든 신청서는 대부분 업무일 기준 90일 이내에 처리된다.
 - 수입하려는 인체 의약품에 규제 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홈오피스(Home Office)에 연락해야 한다(링크: <https://www.gov.uk/guidance/controlled-drugs-industrial-hemp#contact-details>).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주)판토스 영국법인

주소	776 Buckingham Avenue, Slough, Berkshire, SL1 4NL, UK
전화번호	+44 1753 610 403
이메일	jongmin96.lee@pantos.com
홈페이지	http://www.pantos.com

○ 현대상선(주)

주소	4th Floor, City Reach, 5 Greenwich View Place, Millharbour, London E14 9NN, UK
전화번호	+44 207 477 6900
이메일	woojung.kim@hmm21.com
홈페이지	http://www.hmm21.com

○ 롯데글로벌로지스틱스 영국법인

주소	Unit5 Nexus Close, Off Central Way, North Feltham Trading Estate, Feltham, Middlesex TW14 0AF
전화번호	+44 208 577 5692
이메일	woojung.kim@hmm21.com
홈페이지	https://www.lotteglogis.com/english/company/global

○ SNL 로지스틱스

주소	15 Heatherlea grove Worcester park, Surrey, KT4 8GB
전화번호	+44 20 8337 6136

이메일	amgyang@naver.com
홈페이지	http://snluk.com/

○ 한진택배

주소	Unit 5 Devonshire Court, Victoria Road, Feltham TW13 7LU, UK
전화번호	+44 208 867 0001
이메일	admin@worldlinkexp.com
홈페이지	http://www.worldlinkexp.com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 영국의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 영국은 외국인 투자만을 명시적으로 지목하는 특정 심사제도나 법령이 없었으나, 2021년 4월 29일 국가 안보 및 투자 법안(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Bill, NSI)이 여왕의 재가를 받았다.
 - 새로운 법안은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외국인 직접투자를 조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을 현대화하는 동시에 매력적인 투자장소로서 영국의 입지를 다지기 위함이다.
 - 이로써 영국 정부는 투자를 선별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얻게 됐다. 기존의 경쟁시장처(CMA)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국가안보 투자 심사 체제를 도입한다.

투자인센티브

- 연구 및 개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혁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 지원하는 세제 혜택으로, 국내, 외국 기업 관계 없이 적용 가능하다.
 - 중소기업(SME) R&D 지원: 연간 수익에서 적격 비용의 130%를 추가 공제하고 일반 100% 공제를 더해 총 230%를 공제한다.
 - 대기업은 연구 개발 비용 크레딧(RDEC) 청구 가능하며 R&D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청을 준 중소기업 및 대기업도 청구가 가능하다(세금공제, 2021년 5월 현재 현재 13%).
- 벤처캐피탈 제도
 - EIS(Enterprise Investment Scheme) : 기업이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자금 마련을 돕도록 설계한 제도로, 기업의 주식을 새로 사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 제공한다. 이 제도로 기업은 1년에 5백만 파운드까지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고 총 1천 2백만 파운드까지 조달이 가능하다.
 - VCT(Venture Capital Trusts): 소규모 고위험 거래 회사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영국 국세청(HMRC)으로부터 승인받은 회사로, 이 회사들이 비상장 소기업에 주식을 청약하거나 자금을 제공하면 특정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SEIS(the 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투자자가 소규모 및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 사업에 투자 시, 투자가 이루어진 회계 연도에 최대 50%의 세금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최대 150,000파운드까지 자금을 조달 받도록 돕는 제도이다.
 - SISR(The social investment tax relief): 사회적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고안된 정부 지원이다.
- 특허 관련 세금감면 혜택(Patent Box)
 - Patent Box는 영국 기업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발명특허를 취득(지적재산권)했거나 취득을 위해 심사과정에 있는 제품 및 서비스 취급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윤에 대해 10% 법인세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https://www.gov.uk/guidance/corporation-tax-the-patent-box#history>
- UK Foresight
 - 영국 내의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12개월 연구기간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 대상: 선정된 연구 주제에 따라 적합한 선정을 통해 보조
 -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foresight-projects>

제한 및 금지(업종)

- 국가안보 및 투자 법안
 - 경제의 민감한 부문에서 운영되는 기업 및 기타 기관에 대해서는 특정 유형의 매매거래에 대한 승인을 위해 요구 사항을 설정한다.
 - 매매거래 또는 기타 인수로 인해 국가 안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당사자의 신고를 장려하는 자발적 신고 시스템을 만든다. (해당 비즈니스가 자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비즈니스 중 하나가 아닌 경우).
 - 국무장관이 법적으로 정의 된 매매거래 또는 기타 이벤트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안보 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정부에 신고되었는지와 관계없음)
 -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 정권 불이행에 대한 제재 및 법적 도전 메커니즘을 해결하기 위한 구제 조치를 적용할 권한 부여한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 지대	1) 잉글랜드 자유항(Freeports, 세금 감면 지역) 2021년 3월 발표된 세금 감면 지역으로 자유항 내에 위치한 사업체는 취득세가 면제되며 건설 및 기계 투자에 대한 전액 리베이트, 5년간 제로 사업세(Business rates), 관세 인하 등을 포함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선정된 지역은 Felixstowe, Liverpool, Hull, Southampton, London Gateway를 포함한 항구를 기반으로 하며, Plymouth, Teesside, East Midlands 공항 주변 지역도 자유항으로 지정됐다. 2) 웨일스 지역 투자인센티브 - 지원 프로그램 및 대상 - 웨일스 지방 정부는 비즈니스 혁신 지원 패키지 Business Innovation Support Package 프로그램을 통해 웨일스 지역에서 수행될 신규 고 기술혁신 제품 생산 및 개발 관련 R&D 사업 및 생산시설설립 지원, 잠재 R&D 파트너 상담 여행비 지원, 웨일스 내 대학과의 협력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제공한다. - 정부보조금 지원 - 웨일스 지방정부의 비즈니스 혁신 지원 전문가를 통해 SMARTCymru R&D funding, 영국, 유럽 보조금 지원신청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SMARTCymru의 경우 R&D funding은 R&D 프로젝트 수행 전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서나 지원 가능하며 지원 가능 분야는 기술개발, 산업연구, 실험개발 등을 포함하며 액수 및 기간 등은 웨일스 정부 홈페이지 https://businesswales.gov.wales/expertisewales/support-and-funding-businesses/smartcymru(해외전용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3) 스코틀랜드 지역 투자인센티브 - 관할 기관 : Scottish Development International(https://www.sdi.co.uk/) - 주요 인센티브 현황 - RSA(Regional Selective Assistance) Grant : 스코틀랜드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이거나, 프로젝트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은 사업규모나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10만~25만 파운드 사이이다. 자본 지출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프로젝트는 '최초 투자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자본 지출이 수반되지만, 신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사업은 '일자리 창출 대책'을 통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 SMART : R&D 혁신 프로젝트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비의 35%~50% 지급할 수 있다. 참고로 대기업에 속하는 경우는 25%~40% 보조 가능하다. 적격 R&D를 수행하는 컨소시엄(2개사~6개사 협의체)도 지원 가능하다. - 스코틀랜드 투자은행 지원 : 중소기업에 대출 등의 자금조달과 공동투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4) 북아일랜드 지역 투자 인센티브 - 관할 기관 : Invest Northern Ireland (www.investni.com) - 주요 인센티브 현황 - 혁신사업 및 R&D 사업 지원금 : Innovation Vouchers 시스템을 통해 북아일랜드 및 아일랜드 소재 대학, 연구기관들로부터 필요한 전문지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대 5천 파운드를 지원한다. * 자세한 내용 링크 : https://www.investni.com/support-for-business/innovation-vouchers.html - 고속 성장분야 창업 보조금(Funding for high-growth start-ups) : 고기술 소재 산업, 유기과학 관련 산업, 의료 관련 산업, 디자인 엔지니어링 및 광한 산업, 에너지 산업, ICT 산업 등 기타 첨단 산업분야 중 아일랜드 외 지역에서 지난 3년간 성취한 높은 매출을 증명할 수 있고 아일랜드의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경우 창업 컨설팅 지원 및 보조금이 가능하다. 사업내용 검토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되며, 최대 2만 파운드까지 지원된다. * 자세한 내용 링크 : https://www.investni.com/support-for-business/support-for-high-growth-start-ups.html - 금융 지원 : 운영 자금을 비롯해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본에 대해 IDB 측이 정부 자금을 융자해 준다. 해당 자금은 무이자기간이 포함되어있으며 담보제공 등 채권보전조치가 필요하다. 특수한 프로젝트인 경우 Invest NI가 직접 주식 투자의 형태로 참여한다.
-----------------------------	---

산업단지

◦ Brackmills Industrial Estate

규모	274,396 sq ft
위치	Northampton NN4 7TW
임차료	-
관할기관 및 연락처	◦ 공식 연락처 및 홈페이지 - 이메일: sara.homer@brackmillsestate.co.uk - 홈페이지: https://www.brackmillsindustrialestate.co.uk

◦ Island Road Industrial Estate

규모	256,000 sq ft
위치	Island Road, Reading Berkshire, RG2 0RP
임차료	-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에이전시 렌트 문의 - 전화: 07795 043 881 - 이메일: matt.jones@eu.jll.com

◦ Gravelly Industrial Park

규모	1,100,000 sq ft
위치	Birmingham B24 8TB
임차료	-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에이전시 렌트 문의 - 전화: 012 1265 7500 - 이메일: Sam.Robinson@colliers.com

〈자료원 : KOTRA 런던 무역관〉

주요 지역별 여건

◦ 사우스요크셔(South Yorkshire)

- 면적: 1,552km²
- 인구: 140.3만 명 (영국통계청 발표 최신자료)
- 주도: 셰필드(Sheffield)
- 주요 기관: Sheffield City Council
- 주요 산업: 창조 및 디지털 첨단산업

◦ 웨스트미들랜즈(West Midlands)

- 면적: 902km²
- 인구: 590.8만 명 (유로스타트 발표 최신자료)

- 주도: 버밍엄(Birmingham)
- 주요 기관: Birmingham City Council
- 주요 산업: 영국 자동차 제조업체 재규어 랜드로버 공장, 영국 최대 제과업체 Cadbury, 엔지니어링 회사 IMI plc, Amey, Deutsche Bank, 영국 HSBC 본사 등 30,000개가 넘는 국내외 기업들이 소재

◦ 그레이터 런던(Greater London)

- 면적: 1,572km²
- 인구: 890.8만 명 (영국통계청 발표 최신자료)
- 주도: 런던(London)
- 주요 기관: 각종 정부 부처
- 주요 산업: 문화, 서비스, 미디어, 정보통신 첨단산업으로 McKinsey(미국), Richemont(스위스), J.P. Morgan(미국), EY(영국), Amazon(미국), HSBC(영국) 등이 진출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6	2017	2018	2019	2020
258699	96353.8	65299.4	45454.4	19724.4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6	2017	2018	2019	2020
-37605.8	142373	41424.5	-6080.84	-33409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9	151	36	2,690,688	200	2,224,601
2020	115	35	1,737,592	155	1,088,407
2021	48	9	469,696	70	303,69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2019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2	0	12,151	2	2,432
광업	2	0	1,000	12	392
제조업	18	4	146,887	20	155,83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7	1	368,914	9	368,923
건설업	5	0	29,617	0	0
도매 및 소매업	29	8	12,374	39	9,568
운수 및 창고업	1	1	41	1	44
숙박 및 음식점업	2	0	720	5	732
정보통신업	5	2	3,203	6	3,342
금융 및 보험업	29	11	1,943,134	30	1,502,724
부동산업	13	3	128,764	18	137,21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4	35,579	30	35,94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17	1	2,791	25	2,171
교육 서비스업	1	1	264	1	3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	0	5,249	2	5,24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업	1	0	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0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1	0	5,116	0	0
광업	2	0	1,000	10	299
제조업	12	5	27,544	19	27,60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6	1	462,260	4	92,046
건설업	1	1	66	1	29,575
도매 및 소매업	19	7	28,901	19	13,611
정보통신업	11	6	60,752	14	54,828
금융 및 보험업	15	4	1,015,980	24	731,224
부동산업	14	5	17,744	17	17,82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5	5	23,032	24	29,40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18	0	2,163	22	1,043
예술, 스포츠 및 여 가관련 서비스업	1	1	93,034	1	90,951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1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광업	1	0	500	6	175
제조업	14	2	76,084	18	31,91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0	0	0	1	1,076
도매 및 소매업	7	2	1,376	10	15,222
정보통신업	1	0	706	1	706
금융 및 보험업	9	3	281,168	13	239,515
부동산업	0	0	0	3	8,4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	1	7,097	8	5,20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5	0	3,516	9	1,47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0	99,249	0	0
예술, 스포츠 및 여 가관련 서비스업	1	1	0	1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국민은행 런던 현지법인

진출연도	1991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금융보험
취급분야	은행
모기업명	KB금융그룹

○ IBK 기업은행 런던지점

진출연도	1996
진출형태	지점
업종	금융보험
취급분야	은행

모기업명	중소기업은행
------	--------

○ 대우조선해양 런던지사

진출연도	1996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선박
모기업명	-

○ 대한항공

진출연도	1974
진출형태	지점
업종	운송물류
취급분야	항공운송
모기업명	한진그룹

○ 삼성전자(SDE)

진출연도	1984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기타
취급분야	디자인연구소
모기업명	삼성그룹

○ 삼성중공업

진출연도	1980
진출형태	지점
업종	건설공사
취급분야	조선해양설비
모기업명	삼성그룹

◦ 삼성증권 유럽법인

진출연도	1995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금융보험
취급분야	주식중개
모기업명	삼성그룹

◦ 삼성화재 해상보험 유럽법인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금융보험
취급분야	손해보험
모기업명	삼성그룹

◦ 신한은행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지점
업종	금융보험
취급분야	금융서비스
모기업명	신한금융그룹

◦ 아시아나항공 런던지점

진출연도	1999
진출형태	지점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항공예약서비스
모기업명	금호아시아나그룹

◦ KEB 하나은행 런던지점

진출연도	1993
------	------

진출형태	지점
업종	금융, 보험
취급분야	무역투자
모기업명	하나금융그룹

○ 우리은행 런던지점

진출연도	1978
진출형태	지점
업종	금융, 보험
취급분야	금융서비스
모기업명	우리금융그룹

○ 코리안리재보험 런던주재사무소

진출연도	1972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금융, 보험
취급분야	보험
모기업명	코리안리

○ 하이호금속 유럽법인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알루미늄
모기업명	-

○ 한국산업은행 런던지점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지점
업종	금융, 보험
취급분야	증권, 은행업무

모기업명	KDB금융그룹
------	---------

◦ 한국석유공사 영국사무소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광업, 자원개발
취급분야	석유개발
모기업명	한국석유공사

◦ 한국수출입은행

진출연도	1978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금융, 보험
취급분야	금융
모기업명	-

◦ 범한판토스

진출연도	2004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운송, 물류
취급분야	물류
모기업명	LG상사

◦ LG전자 영국법인

진출연도	2004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전기, 전자 도소매
모기업명	LG그룹

◦ 금호타이어㈜ 영국법인

진출연도	197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타이어
모기업명	금호아시아나그룹

◦ 기아자동차 영국판매법인

진출연도	2002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승용차
모기업명	현대자동차그룹

◦ 오로라월드

진출연도	199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인형
모기업명	-

◦ 현대자동차 영국판매법인

진출연도	198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자동차, 자동차부품 판매
모기업명	현대자동차그룹

◦ 현대중공업㈜ 런던지사

진출연도	1992
진출형태	지점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조선, 전기전자
모기업명	현대중공업그룹

○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런던사무소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금융, 보험
취급분야	보험
모기업명	현대해상화재보험그룹

○ SK에너지 유럽

진출연도	2001
진출형태	지점
업종	기타
취급분야	Trading
모기업명	SK이노베이션그룹

○ GS칼텍스(주) 런던사무소

진출연도	1995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석유, 석탄, 철광
모기업명	GS그룹

○ 휴맥스 영국 법인

진출연도	1997
진출형태	지점
업종	기타
취급분야	전자제품 판매/유통
모기업명	-

○ 한화테크윈 유럽법인

진출연도	2001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소매업
취급분야	통신/전자장비
모기업명	한화그룹

○ 경동 나비엔 영국법인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법인
업종	무역/유통
취급분야	보일러 기기
모기업명	-

○ 대한전선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법인
업종	무역/유통
취급분야	전선케이블
모기업명	-

○ 도루코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법인
업종	무역/유통
취급분야	생활용품
모기업명	-

○ 주)두산 산업차량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법인
업종	무역/유통
취급분야	산업용 차량
모기업명	두산그룹

◦ 삼성물산 런던법인

진출연도	1975
진출형태	법인
업종	무역/유통
취급분야	기타
모기업명	삼성그룹

◦ 포스코 인터내셔널 런던지사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법인
업종	무역/유통
취급분야	철강
모기업명	포스코그룹

◦ 현대자동차 영국판매법인

진출연도	1987
진출형태	법인
업종	무역/유통
취급분야	자동차, 자동차부품 판매
모기업명	현대자동차그룹

◦ 효성중공업 영국지점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지점
업종	무역/유통
취급분야	해외영업
모기업명	효성그룹

○ LS 전선(주) 유럽판매법인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법인
업종	무역/유통
취급분야	전선케이블
모기업명	LS그룹

○ 무림페이퍼(주) 유럽법인

진출연도	2004
진출형태	법인
업종	도소매,유통
취급분야	기타
모기업명	무림페이퍼

○ 두산파워시스템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법인
업종	제조/발전
취급분야	발전사업
모기업명	두산중공업그룹

○ 현대상선(주) 구주본부

진출연도	1996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운송, 물류
취급분야	해상운송
모기업명	현대중공업그룹

〈자료원 : KOTRA 런던 무역관〉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영국은 법인의 설립 절차 및 비용이 저렴하고 법인의 폐쇄 또한 쉽기에 외국기업들은 지사나 연락사무소보다 법인 설립을 많이 하나 영국에서 지속해서 영업하지 않고 하나의 특정 프로젝트만을 위해 진출할 때는 지사나 연락사무소 형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1) 투자 형태별 설립 절차

(1) 비공개 주식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LTD)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를 회사 등기소(the Registrar of Companies)에 제출하면 된다. 모든 소정 양식은 회사 등기소에서 구할 수 있으며, 서류 등록 비용은 20파운드이다(설립과 동일자에 등록할 경우 100파운드).

- 회사 설립 시(모든) 자본 출자자가 서명하고 공증된 회사 정관 사본(이때 자본 출자자는 한 명이라도 상관없음)
- 초대 이사 및 비서역에 관한 보고서: 이사 및 비서역의 취임 동의서(서식 10)와 회사의 등록된 사무소 주소 첨부
- 회사법 1985에서 규정한 제반 절차를 이행했다는 서약서(이 서약서는 공증인 입회하에 변호사, 이사 또는 비서역이 작성)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제반 요건이 충족된 경우 회사 등기소는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발급한다. 회사 설립 증명서의 발급은 사실상 회사의 영업 개시를 인가한 것을 의미하며, 그 이전에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회사 설립 후 신고 사항
 - 회계연도의 신고: 1996년 4월 1일 이후 설립 회사는 자동으로 회사 설립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이 되나, 요건 충족 시 현재의 회계 연도 변경도 가능한데, 이때는 서식 225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 신주 발행: 신주 발행 경우에만 해당
 - 상호 및 정관의 변경: 회사 상호의 변경은 인가받는데 통상 10일이 소요되나 100파운드의 수수료를 내면 하루 만에도 가능하다. 새로운 회사명은 '회사명 변경 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n change of name)'가 발급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설립 후 이사회회의 소집: 이사는 회사 설립 후 즉시 이사회회의를 소집해 회사를 설립하는 데 따른 절차를 승인하고, 거래 은행 및 회계 감사인의 지정, 주주에 대한 주권 발행 등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 법인 설립 후의 보고 의무
 - 회계 자료 보고: 결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재무제표를 회사 등기소(registrar)에 제출해야 한다.
 - 연차 보고서 보고: 매년 작성, 제출 의무가 있으며 작성일로부터 28일 이내에 회사 등기소(Companies House)에 제출해야 한다(제출 수수료 15파운드).
 - 연차 주주총회 개최: 매년 1회 이상, 이전 주주총회로부터 15개월이 지나기 전에 개최해야 한다.

(2) 공개 주식회사(Public limited company: PLC)

비공개 주식회사는 주식을 공모할 수 없는 반면, PLC는 자금 조달 방법으로 주식 공모가 가능하다. PLC는 비공개 주식회사보다 엄격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비공개 주식회사로 설립할 것인지는 각각의 장단점을 회사의 상황에 비추어 결정해야 하는데, 비공개 주식회사로 설립한 후 PLC로 전환하는 것은 처음부터 PLC로 설립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하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일부 기업들은 회사 이름 뒤에 붙는 PLC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주식 상장을 앞두면서도 PLC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PLC 설립 방법은 비공개 주식회사 설립과 유사하나 다음 사항에 차이가 있다.

- PLC 정관에 public limited company로 명기해야 한다.

- PLC의 회사명은 반드시 public limited company 또는 PLC로 끝나야 한다.
- PLC는 최저 2명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비공개 주식회사는 최저 1명의 이사).
- PLC의 수권 자본금은 5만 파운드 이상이어야 한다(비공개 주식회사는 1파운드 이상으로 사실상 수권 자본금 제한 없다.).
- PLC의 발행 주식 총액은 수권 자본 금액의 25% 이상이고, 주식이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되는 경우는 프리미엄 금액 전액이 납부되어야 한다.
- PLC의 비서역(company secretary)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경험 및 적절한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 PLC가 최저 자본금에 관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회사 법(Company Act) 117조가 규정한 설립 인가증이 회사 등기소(registrar)로부터 발급되며, 이 인가증 발급 이전에는 업무상 거래나 차입 행위가 금지된다.

(3) 공장 설립

일반적으로 공기, 물 또는 토지를 오염, 홍수, 토지 배수에 악영향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장의 경우 환경 허가(environmental permit)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요소의 종류에 따라 허가 신청이 다르게 이뤄지며 목록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gov.uk/guidance/check-if-you-need-an-environmental-permit#who-to-apply-to>

2) 참고사항

대부분의 영국진출 한국기업은 단독법인(LTD)으로 설립하고 있으며, 일부는 지사로 설립하되, 이 경우 모든 법적인 책임과 의무는 본사에 귀속된다.

지사

외국 회사가 영국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보조적 또는 임시적이 아닌 경우에는 지점 등록 규정(branch registration regime)에 따라 지점 등록을 한다. 지점은 외국 회사를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직되며, 이는 영국 거주자가 외국 회사 본사와 거래하는 대신 영국 지점과 직접 거래함을 의미한다.

1개 이상의 지점 설치도 가능하다. 지점을 설립한 외국 회사는 지점 개설 후 1개월 이내에 서식 BR1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해 해당 등록 사무소에 제출하며 등록 비용은 20파운드이다. 모든 서류는 공증된 영문 번역서로 제출돼야 하며, 최초 지사 개설 후 복수 개설되는 다른 지점은 최초의 지점 등록 번호를 서식 BR1에 기재하면 정관 등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회사 현황자료, 메모랜덤 및 회사 정관의 인증된 사본(만약 원본이 영어 이외의 것으로 돼 있으면 인증된 영문판 문서도 함께 준비)

-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 BR1 양식
 - 외국 회사 본점에 관한 사항
 - 회사 명칭
 - 사업장 명칭(회사 명칭과 다른 경우)
 - 회사의 설립 국가, 설립 국가에서의 법인 등록번호, 설립 국가의 등록 기관
 - 회사의 형태
 - 회사의 이사와 비서의 명단, 주소, 국적, 직업, 생년월일 등
 - 제3자와 거래 및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이사의 권한의 정도 신용 또는 금융기관 여부
- EU 회원국 이외에서 설립된 외국 회사는 추가로 아래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 회사의 설립 근거법
 - 설립 국가 내 주소, 회사의 목적, 자본금
 - 본사의 회계 기간 및 본사 소재국의 법에 따른 회계 보고서 작성 및 공시 기한 영국 지점에 관한 사항
 - 지점 주소
 - 개설 일자

- 지점에서 수행하게 될 사업 내용
- 회사의 명칭과 사업장 명칭이 다른 경우는 사업장 명칭을 기재
- 지점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영국 내 거주자의 성명 및 주소
- 권한의 행사 범위(즉, 위임 기관이 범위 내 또는 제한을 표시한 정도 내인지) 및 공동 대표면 관련된 자의 성명

○ 지점 등록 후 신고 사항

- 회계 자료 보고
- 본사의 회계 보고서 작성, 회계 감사 및 공시에 관한 본사 소재지국에서의 의무에 따라 상이
- 회사 설립 국가 내에서의 공시 의무가 있는 경우 지점 설치 후 1개월 이내에 최근 공시 회계 보고서 사본을 번역 공증을 첨부, 제출
- 회사 설립 국가 내에서의 공시 의무가 없는 경우 사무소 관련 규정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
- 회계 보고서 제출 기한. 본사 소재국의 법이 공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법에 따라 회계 보고서를 공시할 때마다 공시 후 3개월 이내에 영국의 회사 등기소에 회계 보고서 사본 제출. 회계 보고서는 등록비 15파운드와 함께 제출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후 21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본격적인 영업 개시 전 현지시장 상황을 가볍게 ‘응수 타진’하고 싶을 경우 적합한 형태로 외국 회사가 영국에서 보조적, 임시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경우 사무소 등록 규정(place of business regime)에 따라 영국에 사무소 등록을 해야 한다. 임시적인 기능으로는 창고 시설, 관리 사무소 및 내부 자료 처리 시설 등을 일컫는다.

외국 기업이 영국 내에 사무소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회사 등기소(Register)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영문이어야 하며, 영문 이외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공증된 번역을 첨부해야 한다. 등록 수수료는 20파운드이며, 개설과 동일자에 등록할 때에는 100파운드이다(스코틀랜드 또는 북아일랜드에 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각각 Edinburgh, Belfast 상업등기소에 별도 등록해야 함.).

○ 공증된 회사의 정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규정의 사본(Certified copy of the Memorandum & Articles of Association)

○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는 양식

- 회사의 이사와 비서의 명단
- 회사를 위해 근무하도록 요청된 어떠한 통고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한 사람 이상의 영국 거주자의 성명과 주소
- 이사 또는 비서에 의한 영업장 설립 일자의 법률상 공고

사무소 등록 후 신고사항: 회계 자료 보고의 경우 사무소는 본사 재무제표를 등기료(15파운드)와 함께 영국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본사 재무제표가 영국 파운드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경우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을 기재해야 한다. 본사 재무제표 제출 기한은 결산일로부터 13개월이다. 신고 내용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1) 투자위험도 영국은 World Bank에서 공개하는 Ease of Doing Business 순위에서 8위를 차지하였다. 이 순위는 https://www.doingbusiness.org/en/rankings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는 유럽에서 덴마크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순위이며 인구 1천 만이 넘는 국가 중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순위이다. 영국이 높은 순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데는 소수 투자자 보호(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인데 이 부문은 기업투명도, 기업 소유 및 통제 등 투자 위험도와 관계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다국적 컨설팅 기관인 A.T.Kearney가 매년 발표하는 '외국인직접투자 신뢰지수(Foreign Direct Investment Confidence Index)'에 따르면, 2021 기준 영국의 FDI 신뢰지수는 25개국 중 4위이며 유럽에서는 독일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다. 영국으로의 외국인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통상부는 영국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Why choose the UK)로 안정성(Stability and security), 투명성(Transparency and simplicity), 영향력(Diplomacy and influence)을 꼽고 있다. 이는 영국이 국가차원에서 투자위험도가 낮다는 것을 투자대상지로서의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투자진출형태별 애로사항 영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은 없다. 영국 및 외국 투자자는 법에 따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대부분의 경우 영국 경제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 외국기업의 지분이 제한되는 산업 영역도 없다. 외국투자기업이나 내국기업 모두 독과점 관련 규제를 받아야 하며 영국 안보나 경제에 중요한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때도 있다. 최근 영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분야의 기업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인수합병이 늘어남에 따라 영국 정부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조사하고 개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은 국가보안 및 투자법((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 2021))으로 불리며 2021년 4월 법으로 제정되었고 2022년 1월부터 본격 시행 된다. 동법을 통해 은 잠재적으로 적대적이 될 수도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개입할 수 있게 하는 프로세스가 도입된 것이다. 이 중 주요 내용은 의무사전신고제도(Mandatory Notification), 자발적 신고제도(Voluntary Notification), 콜인 제도(Call-in Power)이다. 따라서 특정 산업군에서 인수합병 시, 사전신고가 필수이며 그 외 부문은 자발적으로 신고를 수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3) 분쟁해결 영국은 국제통상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를 통해서 현지 투자진출 관련 애로를 상담할 수 있다. 세제 및 비자 관련 가이드(Simple guidance on expanding to the UK, including tax and immigration), 영국 진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업 소개(Access to UK companies that specialise in helping businesses expand to the UK), 투자 유망 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Highlights of high-potential opportunities within UK regions) 등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영국 투자진출 관련 애로가 있을 시 협의가 가능하다. 연락처는 다음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다. https://www.gov.uk/world/organisations/departement-for-international-trade-south-korea
------------	--

다. 회사 유형

주식회사

공개주식회사는 반드시 2명의 이사와 1명의 회사비서(Company Secretary)가 등재돼야 하며, 기업은 반드시 1년에 한 번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사의 이익은 주주에게 배당으로 배분되거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관해 개인적인 책임은 없다. 한편 이사는 컴퍼니 하우스에 회사 조직, 경영진의 변동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지분을 투자한 개인 혹은 단체는 그 지분에 비율만 재무적 책임을 지며, 유한책임회사의 재무는 지분을 가진 개인 혹은 단체의 사적인 재무와 별개이다. 유한책임회사가 파산할 경우에 지분 소유자들의 개인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요 형태로는 비공개주식회사(Private Limited Companies, LTD)와 공개주식회사(Public Limited Companies, PLC) 그리고 무한책임회사(Private Unlimited Companies)가 있고 반드시 컴퍼니 하우스에 등록을 해야 한다.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이사(Director)를 등재해야 하고, 그 이사는 반드시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단체가 아닌 개인이어야 한다.

개인사업자

회사를 설립 운영하는 가장 간편한 수단으로, 모든 수익과 책임이 개인에게 귀속된다. 모든 의사결정은 개인이 하게 되며, 자금 또한 개인이 마련하게 되어 있다. 또한, 1년에 한 번 자영업자 세금평가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회사 운영에 따른 수익과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 PWC 삼일회계법인

전화번호	+44 77 1003 6546
주소	1 Embankment Pl, London WC2N 6RH
홈페이지	http://www.pwc.co.uk
이메일	kim.kyung-hwan@pwc.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이사 김경환, 과장 김미경

◦ KPMG 삼정회계법인

전화번호	+44 207 311 2979
주소	15 Canada Square, Canary Wharf
홈페이지	http://www.kpmg.co.uk
이메일	kim.kyung-hwan@pwc.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이민건 매니저

◦ 언스트앤영 한영회계법인

전화번호	+44 207 951 2000
주소	1 More London Place, London SE1 2AF
이메일	ckwak@uk.ey.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공인회계사 곽철민

◦ KPY 필립스 영

전화번호	+44 203 274 3066
주소	13 Approach Road, London SW20 8BA
이메일	Kpyra@kscacca.co.uk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대표이사 권순재
--------------	----------

○ 루이스 실킨 법무법인

전화번호	+44 20 7074 8000
주소	5 Chancery Lane - Clifford's Inn London EC4A 1BL
홈페이지	http://www.lewissilkin.com
이메일	soyoung.lee@lewissilkin.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변호사 이소영

○ Addleshaw Goddard LLP

전화번호	+44 20 7788 5175
주소	Milton Gate 60 Chiswell Street London EC1Y 4AG
홈페이지	http://www.addleshawgoddard.com
이메일	soyoung.lee@lewissilkin.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변호사 박성진

○ 스콰이어 패튼 보그즈(유케이)

전화번호	+44 20 7655 1000
주소	7 Devonshire Square, London, EC2M 4YH
홈페이지	http://www.squirepb.com
이메일	kwangkyu.park@squirepb.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변호사 박광규

○ 스티븐슨 하우드

전화번호	+44 20 7809 2541
주소	1 Finsbury Circus, London, EC2M 7SH
홈페이지	http://www.shlegal.com
이메일	shaun.park@shlegal.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변호사 박응균

◦ 조철현 회계법인

전화번호	+44 20 8330 5115
주소	C A P, PARK HOUSE, PARK TERRACE KT4 7JZ
홈페이지	http://www.choacca.co.uk
이메일	admin@choacca.co.uk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이사 조철현, 실장 윤용주

◦ 최무룡 회계법인

전화번호	+44 20 8979 6761
주소	69 Station Road, Hampton, Greater London TW12 2BT
홈페이지	http://www.furuichoi.com
이메일	info@furuichoi.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변호사 최무룡

◦ 힐 디킨슨

전화번호	+44 20 7283 9033
주소	The Broadgate Tower, 20 Primrose Street, London EC2A 2EW
홈페이지	http://www.hilldickinson.com
이메일	jeff.park@hilldickinson.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변호사 박정규, 맹주영

◦ 홀만 펠릭스 월란

전화번호	+44 20 7264 8000
주소	Friary Court, 65 Crutched Friars, London EC3N 2AE
홈페이지	http://www.hfw.com
이메일	kijong.nam@hfw.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변호사 남기종

◦ Leigh Carr

전화번호	+44 20 7566 3900
------	------------------

주소	12 Helmet Row, London EC1V 3QJ
홈페이지	http://www.leighcarr.co.uk
이메일	kijong.nam@hfw.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공인회계사 방규승

◦ 3CS 로펌

전화번호	+44 20 7194 8140
주소	New Broad Street House, 35 New Broad Street, London EC2M 1NH
홈페이지	http://www.3cslondon.com
이메일	kijong.nam@hfw.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대표 유연주, 변호사 신현의

〈자료원 : KOTRA 런던 무역관〉

5.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1979년 이전에는 외환 통제법(Exchange Control Act of 1947)으로 인해 개인 및 기업이 외화를 보유하는 것이 금지됐다. 따라서 영국 거주자의 외국 영토에서의 자본 거래(직접 및 포트폴리오 투자)를 엄격하게 규제했다. 1979년 10월 24일부터 금융, 보험 등 서비스 부문의 흑자 확대를 겨냥, 정부의 외환 통제를 전면 철폐하고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에 의한 환율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외환 규제

1979년 10월에 외환 규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국내 자금, 해외 자금 모두 무제한으로 조달할 수 있다. 법인을 비롯한 모든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외화 거래가 가능하며 개인의 통화 계좌를 만들거나 환전소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이는 파운드에 한정되지 않고 유로, 달러 등 외국 통화도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영국에서는 외국 기업의 국내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관한 제한이 없다. 단, 금융 기관과의 각각의 거래에 따라 조건이 다르고, 모회사로부터의 보증이나 그 외 다른 형태로 담보를 설정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있다. 대외 차입에 대해서도 규제는 없고 영국 통화 이외의 외화로도 차입도 가능하다. 하지만 국제연합이나 유럽연합의 정치적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와의 거래는 금지되고 있다. 또한, 통상의 유가증권이나 금융 상품의 규제가 없고, 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한은 없다.

영국은 외국 투자자가 정당하게 취득한 이익금의 대외 송금, 곧 과실 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배당, 원본, 이자, 로열티의 송금도 자유롭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38달러 = 1파운드 (2021년 5월 기준)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33,422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26,220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12
비고	생활물가가 높은 런던 평균 대졸 초임 임금: £ 31,083 (42,895달러) 영국 전체 연봉 중앙값은 £ 31,461(43,416달러) 국가 생활 임금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간당 £ 8.91(12.30달러)로 인상(전년 8.72파운드, 23세 이상) 21~22세: £ 8.36(11.54달러) 18~20세: £ 6.56(9.05달러) 18세 이하: £ 4.62(6.38달러) Apprentice: £ 4.30(5.93달러)				

<자료원 : 영국 통계청, Reed, Indeed, Luminat>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고용주는 신규 직원이 영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영국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 확인
 - 지원자가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최대 £ 2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 EU 시민과 국가 가족 구성원은 2020년 이후에도 영국에서 일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settled status를 신청해야 한다.
- 범죄 기록 확인
 - 지원자의 DBS(Disclosure and Barring Service)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건강관리 혹은 보육분야와 같은 업무에 지원하는 경우 더 자세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 * 이미 지난 유죄 판결을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법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범죄 기록을 확인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건강 검진
 - 특정한 경우 지원자를 고용하기 전에 건강 상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상용차 운전자의 시력 검사나 보험사가 사이클 택배에 대한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지원자에 오퍼레터를 제공할 경우 검진 내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이에 대한 의사 및 서면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2) 고용주의 고용 조건에 대한 문서화 의무

영국에서 고용계약서(Contract of employment)와 관련해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근무 시작일 기준 2개월 이내에 고용 계약 관련 정보가

담긴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written statement)해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고용주명/피고용인 성명
- 고용 시작일
- 수습기간 관련 세부사항
- 임금 및 임금 지급 날짜
- 주당 근로시간/근무 요일/근로시간 변동 여부
- 연차 및 유급휴가 지급액
- 병가 관련 세부사항 및 유급 병가 지급액(또는 관련 규정 안내)
- 기타 유급휴가 관련 세부사항
- 연금제도 및 연금 지급액(또는 관련 규정에 대한 안내)
- 복리후생 관련 세부사항
- 고용 종료 시 해고 통지(termination notice) 기간
- 직위 및 업무 내용
- 고용 계약 기간(계약직일 경우)
- 근무 장소
- 단체 협약(collective agreements) 적용 시 세부 사항
- 영국 밖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해외 근무지에서의 근무 기간, 해당국의 통화로 환산된 임금, 해외근무를 하는 데 필요한 추가 수당이나 혜택, 영국 복귀 관련 사항
- 징계 관련 세부사항(또는 관련 규정에 대한 안내)
- 징계 결정에 대한 항소 시/고충 제기 시 담당자 세부 정보
- 기타 트레이닝 수단/조건 세부사항

상기 고용 조건들을 보다 상세한 고용 계약서에 포함할 수도 있는데, 상세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고용주와 근로자 간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고 보너스 지급의 재량권이 고용주와 피고용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 등과 같은 발생 가능한 분쟁 사항도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 특히 상위직 피고용인과의 고용계약 시 이러한 상세한 고용 계약서의 작성에 권고되며, 고용규모가 크면 법률회사로부터 계약서 내용을 자문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종업원의 법적 보호권(Mandatory Rights)

영국의 고용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용주는 고용 조건에 관한 문서를 피고용인에 전달해야 하며, 이러한 고용 조건은 법령이 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최소 기준 또는 법적 보호권은 피고용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통상 영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피고용인에게 적용된다.

근로시간

영국 내 법정 근로시간 한도는 1주일(7일) 기준 48시간이며, 이는 17주(reference period) 평균으로 계산된다. 즉, 17주 기간 1주에 48시간 이상을 근무한 기간이 포함돼도 17주 전체 평균이 주당 48시간 이하라면 법적 기준에 부합한다. 전문직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고용주와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에 서면으로 동의할 수 있다. 이는 “주 48시간 옵트아웃(48-hour week opt-out)”이라고 불린다.

예외적으로 비행기 승무원, 선박 근무자, 버스 운전사, 경찰 등의 특수직업군은 opting out이 불가하다.

휴가

1) 유급휴가권

영국의 법정 공휴일은 총 8일이다. 법정 최소 유급휴가는 주5일 근무자 기준 최소 연 28일이 보장되며, 법정공휴일(bank/public holidays) 8일을 포함할 수 있다. 유급휴가 기간 고용주는 정상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유급 연차 일수는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된다.

2) 출산, 육아 관련 휴가

법정 출산 휴가, 법정 출산 수당, 산전 관리를 위한 유급 휴가, 정부의 지원이 법으로 마련되어 있다. 법정 출산 휴가 기간 고용권리가 보호되며 임금 인상, 휴가, 직장 복귀가 이에 해당한다.

출산휴가는 총 52주로 26주의 기본 출산휴가와 26주의 추가 출산휴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출산 직후 2주는 반드시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파트너가 출산하거나, 입양, 대리모를 통해 출산하는 경우 1~2주 유급 유가 휴가, 수당, 경우에 따라 공유 육아 휴가 및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산 및 육아 휴가와 마찬가지로 이 기간 동안 임금 인상, 휴가, 직장 복귀가 보장된다.

3) 병가수당

질병 및 기타 진료로 인한 타임오프 관련 규정은 통상적으로 고용계약서(또는 직원 핸드북)에 명시되어 있으며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병가 4일 차부터 최대 28주까지 법정 병가 급여(Statutory Sick Pay; SSP)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중견기업 이상의 대다수 고용주는 병가 중인 직원에 일정 기간 법정 병가 급여 이상의 급여(정상임금 또는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다.

해고

고용주는 고용 계약 종료를 종업원에게 적절히 통지함으로써 고용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법정 최소 통지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은 종업원의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1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2주간의 최소 통지기간을 가진다. 통지 기간은 계약상 통지 기간이나 법정 최소 통지 기간 중 긴 기간을 선택해야 한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또는 계약서상 통지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종업원은 타당한 기간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통지 기간은 관련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항상 법정 최소 통지 기간은 준수되어야 한다.

1) 공정 해고 조건(이유)

- 무능(Capability): 종업원이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품행(Misconduct)
- 정리 해고(Redundancy): 보통 고용주가 전체적으로 또는 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중단한 경우, 특정 작업에 필요로 하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적어진 경우, 또는 특정 위치에 필요 없는 경우)
- 불법 행위(Contravention of a Statutory Enactment)
- 기타 해고를 정당화하는 상당한 이유(Some Other Substantial Reason)

2) 부당 해고

고용주가 정당한 통지 조치 없이 종업원을 해고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러한 일방적인 해고 조치가 종업원의 심각한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 아닌 이상 고용주가 고용 계약을 위반한 것에 해당, 고용주는 통지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와 복리 후생 급여는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종업원은 적법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인정 해고(Constructive Dismissal)

고용주가 고용 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종업원은 사임하고, 이러한 사임이 고용주에 의한 부당한 해고 조치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러한 고용주의 심각한 위반의 예는 직급의 하향 조정 및 일방적인 급여 삭감 등이 있다. 종업원은 고용주의 고용 계약 위반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정리해고(Redundancy)

해고의 한 형태로 고용주가 인력을 줄여야 할 때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더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때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의 방향이 바뀌었거나 새로운 기계를 사용하여 다른 방식으로 작업하는 경우, 근무지를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정리해고를 진행하려면 사업에 해당 직원의 업무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정리해고 대상 직원에게는 정리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구직이나 구직을 위한 트레이닝을 받기 위한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정리해고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행사해서는 안 되며 해고 이전에 정리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고 이전에 조직 내에서 다른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퇴직금

영국 노동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하지만 매월 AP (Automatic Enrollment Payment)라는 명목으로 회사, 직원, 정부 3자가 총 8%의 연금을 납부하고 있다.

법정 정리해고 수당은 피고용인의 나이와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된다.

- 41세 생일 이후: 근무연수 1년 당 1.5주의 급여 지급
- 22세 생일 이후: 근무연수 1년 당 1주의 급여 지급
- 22세 생일 이전: 근무연수 1년 당 0.5주의 급여 지급

주급(현재 최고 544파운드)에 근무연수(현재 최고 20년)와 연령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현재 최고 법정 정리 해고수당은 16,320파운드이다. 피고용인은 또한 특정한 경우 고용 계약 종료 수당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향상된 정리 해고 정책을 운영할 경우 계약상의 권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있는 경우 피고용인은 법정 정리 해고 수당 외에 퇴직 수당과 같은 혜택을 갖게 될 수도 있다.

다. 사회보장세

건강보험

국가로부터의 혜택과 연금을 받기 위해 국민보험(NI, National Insurance)을 지불한다. 16세 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로 NI를 지불해야 한다.

- 주당 £ 184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 자영업자이며 연간 £ 6,515 초과 수입이 있는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자발적 NI 납입이 가능하다.

납입 금액은 클래스 구분에 따라 다르며 보통 피고용인은 Class 1의 경우로 주급 £ 184부터 £ 967까지(월급 £ 797부터 £ 4,189)는 12%를 지불하고 주급이 £ 967(월급 £ 4,189)를 초과하는 경우 2%를 지불해야 한다.

* 해외에서 영국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는 직원은 임시 또는 영구 고용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NI를 지불해야 한다. 직원이 EU,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에서 온 경우, PDA1를 소지하고 있다면(2021년 1월 1일 이전 발급) NI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 외의 국가에서 온 직원이 해당 국가의 사회 보장법을 적용받고 있고,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NI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고용보험

고용주는 고용주 책임보험(EL, Employers' Liability Insurance)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최소 500만 파운드 이상을 커버해야 한다. EL보험은 직원이 업무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때 사용된다.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매일 2,5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조사관이 고용보험 증명서(EL Certificate)를 요구했을 때 공개를 거절하면 1,0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산재보험

고용주 책임보험(EL) 내에 산재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연금

◦ 기본 국민연금

건강보험에서 언급한 국가로부터의 혜택과 연금을 받기 위해 지불하는 국민보험(NI, National Insurance) 역시 국민연금에 해당한다.

2021년 5월 기준 1951년 4월 6일 이전에 태어난 남성과 1953년 4월 6일 이전에 태어난 여성은 국민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기본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NI를 납부하거나 적립해야 한다.

현재 지급되는 최대 금액은 주당 £ 137.60이다.

국민연금은 매년 소득-평균 임금 상승률이나 CPI로 측정된 영국의 가격 상승률, 2.5% 중 가장 높은 요율을 적용하여 인상한다.

◦ 직장 연금

한편, 영국은 영국의 모든 고용자는 조건을 충족하는 피고용자의 의사에 따라 피고용자를 연금계획에 등록하고 일정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연금계획에 등록한 후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조건

- 근로자
- 22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연령 사이인 경우
- 연간 최소 £ 10,000 수입이 있는 경우
- 영국에서 근로하는 경우

◦ 등록 후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

- 등록 날짜
- 등록한 연금계획 종류
-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부담액
- 원치 않으면 연금계획을 취소하는 방법
- 정부가 제공하는 Tax relief를 받는 방법

- 20년 7월 기준 고용주 기부율(contribution rate)은 3%, 피고용자는 5%이다.

- * 자세한 내용은 <https://www.gov.uk/workplace-pensions/what-you-your-employer-and-the-government-pay> 에서 확인 가능하다.

7. 세무

가. 조세제도

법인세

영국 정부는 기업들의 세금부담 경감을 통한 경기 부양을 위해 2017년부터 법인세율을 기존의 20%에서 19%로 인하했으며, 현재까지 19%가 적용되고 있다.

영국의 모든 회사는 Companies House에 등록과 동시에 법인세와 PAYE as an employer를 등록해야 한다. 법인세는 사업 시작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음 유형의 기업은 영국에서 사업을 수행한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지불해야 한다.

- 유한회사
- 영국 지사 또는 사무실이 있는 외국 기업
- 클럽, 협동조합 또는 법인이 아닌 협회

2009년 10월 1일 이후로 영국에서는 지점(Branch),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영국에 있는 외국 회사의 지점이나 사업장을 UK establishment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영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이나 지점 등 일정 물리적 실체(Physical Presence)가 있을 경우에 외국기업으로 등록(Register an Overseas Company)을 하게 된다. 등록시 UK establishment의 명칭은 자국기업 이름을 사용해도 되고 다른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다. 법인세 관점에서는 영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여 UK establishment의 소득이 발생하면 영국 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다.

○ 등록방법

- 온라인으로 법인세를 등록할 수 있다.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Government Gateway 사용자 ID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사용자 ID가 없는 경우에는 ID를 생성할 수 있다.

- 회사의 UTR(Unique Taxpayer Reference)도 필요하다. 이는 10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가 Companies House에 등록된 후 14일 이내에 HMRC(HM Revenue and Customs)에서 제공한다. UTR을 생성하지 못했다면 온라인으로 요청할 수 있다.

- HMRC에 알릴 때에는 회사 등록번호(registration number), 사업 시작 날짜, 다음 연차 결산보고서 날짜를 포함해야 한다.

○ 납부방법

법인세의 지불 기한은 과세 대상 수익에 따라 다르다. 과세 수익 최대 150만 파운드까지는 회계 기간 종료 후 9개월 1일 이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분할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는 온라인(링크: <https://www.tax.service.gov.uk/pay/corporation-tax/choose-a-way-to-pay>)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더이상 우체국에서 지불할 수 없다.

개인소득세

영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대부분 PAYE (Pay As You Earn)을 통해 소득세를 지불 한다. PAYE는 원천징수의 개념으로 고용주나 연금 제공자가 임금이나 연금을 지불하기 전에 소득세 및 국민보험료(National Insurance)를 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근로자들은 Tax code(세금 코드)를 부여받으며 이 코드에 따라 소득세를 지불하게 된다.

현재 과세연도는 2021년 4월 6일부터 2022년 4월 5일이며 소득이 과세 범위에 따라 지불하는 소득세가 달라진다. 2021년 5월 기준 과세가 면제되는 기본 소득 기준은 12,570파운드로 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소득별 과세율

£ 12,570 이하: 0% (Personal Allowance)

£ 12,571 ~ £ 50,270 : 20% (Basic rate)

£ 50,271 ~ £ 150,000: 40% (Higher rate)

£ 150,000 이상: 45% (Additional rate)

부가가치세

식품류 및 서적류, 아동의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높은 부가가치세(20%)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 영국 정부는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VAT를 인하, 2009년에는 한시적으로 VAT 세율로 15%를 적용했으나, 2010년에 17.5%, 2011년 1월 4일부터 20.0%로 다시 인상해 2021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식품 및 아동복에는 0%의 부가세가 적용되며 어린이용 카시트, 가정용 에너지에는 5%의 부가세가 적용된다.

특별소비세

영국에서 생산되거나 영국으로 수입되는 석유, 주류, 담배에는 특별소비세(excise duties)가 부과된다. 영국 관세청에서는 품목별로 구분해 특별소비세율을 달리 책정하고 있으며 품목별 특별 소비세율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trade-tariff-excise-duties-reliefs-drawbacks-and-allowances/uk-trade-tariff-excise-duties-reliefs-drawbacks-and-allowances>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1) 상표권(Trade marks)

- 상표법(The Trade Marks Act 1994)
 - 현행법은 The Trade Marks Act 1994이며, 영국 상표법의 일부를 구성한다.
 - 'Unofficial consolidated version Trade Marks Act 1994 as amended'에서 상표등록 및 영국 등록 상표 보호를 다룬다.
 - 'Unofficial consolidated version Trade Marks Act 1994 as amended'는 개정된 1994년 상표법의 통합 문서(비공식)로 2019년 1월 발효된 'The Trade Mark Regulations 2018 (SI 2018/825)'을 포함한다.
- 등록절차
 - 영국특허청 데이터베이스(<https://www.gov.uk/search-for-trademark>)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권이 기등록돼 있지 않은 지 여부 확인해야 한다.
 - 특허청이 요구하는 Form(TM3 Form 등) 및 기타 요구되는 자료, 정보와 함께 등록 신청한다.
 - 신청 후, 20일 안에 영국특허청에서 Feedback을 제공한다.
 - Feedback에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을 2개월 내 충족해야 한다.
 - 충족한 경우, 영국특허청에서 해당 상표권을 영국특허청 저널(Journal)에 기재해 Public에 공개해야 한다.
 - 2개월 동안 해당 상표권 등록에 대한 반대(Objection)가 없는 경우, 등록이 허가된다.

2) 특허권(Patents)

- 특허법(The Patents At 1977)
 - 특허 출원에 대한 요구사항, 특허 부여 프로세스의 작동방식 및 특허분쟁 관련 법률 명시한다.
 - 영국 법률이 유럽특허협약 및 특허협력조약과 관계되는 방식 설명한다.
- 등록절차
 - 영국특허청 데이터베이스(<https://www.gov.uk/search-for-trademark>)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권이 기등록되어 있지 않은 지 여부 확인해야 한다.
 - 특허청이 요구하는 Form(TM3 Form 등) 및 기타 요구되는 자료, 정보와 함께 등록 신청한다.
 - 신청 후, 20일 안에 영국특허청에서 Feedback을 제공한다.
 - Feedback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2개월 내 충족해야 한다.
 - 충족한 경우, 영국특허청에서 해당 상표권을 영국특허청 저널(Journal)에 기재해 공개한다.
 - 2개월 동안 해당 상표권 등록에 대한 반대(Objection)가 없는 경우, 등록이 허가된다.

3) 디자인(Designs)

- 디자인 등록법(The Registered Designs Act 1949)
 - 영국 내 디자인등록 및 등록 디자인 보호에 관한 현행법이다.
 - 해당법의 통합버전(비공식)은 2006년 1월 디자인 등록법 규제개혁(the Regulatory Reform(Registered Designs)) 명령이 발효된 이후 변경사항을 포함한다.
-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 파트(5, 6)의 섹션(274~285, 285~295)은 특허 대리인, 특허 카운티 법원 등과 관련

- 등록절차

- 영국특허청 데이터베이스(<https://www.gov.uk/search-registered-design>), EU특허청 데이터베이스(<https://www.tmdn.org/tmdsview-web/welcome>) 및 WIPO데이터베이스(<https://www.wipo.int/designs/en/#services>)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기등록되어 있지 않은 지 여부를 확인한다.
- 특허청이 요구하는 Form(DF2A 등) 및 기타 요구되는 자료, 정보와 함께 등록 신청한다.
- 신청 후, 20일 안에 영국특허청에서 Feedback을 제공한다.
- Feedback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2개월 내 충족해야 한다.
- 충족한 경우, 영국특허청에서 해당 디자인을 영국특허청 저널(Journal)에 기재해 2개월간 Public에 공개해야 한다.
- 해당 기간 동안 해당 상표권 등록에 대한 반대(Objection)가 없는 경우, 등록이 허가된다.

4) 저작권(Copyright)

-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 1989년 8월 발효 이후 여러차례 개정되었으나 단일 텍스트로 통합되어 있지 않다.
- 영국정부가 해당 법률의 저작권 부문에 관한 가이드스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문서는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법적 권한이 없다.

- 등록절차

-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등)이 요구하는 조건 충족 시, 등록 없이 자동으로 보호된다.
- 단, 해당 저작권을 라이선스하거나 매각 등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저작권의 보호 조항 및 라이선스·매각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가 필요하다.

5) 지식재산권 보호유형

- 자동 보호

- 저작권: 발명품 및 제품(예: 기계 및 기계 부품, 도구, 의약품), 문학작품, 예술, 사진, 영화, TV, 음악, 웹콘텐츠, 사운드 녹음
- 디자인: 물체의 모양

- 등록신청을 통한 보호

- 상표권: 제품 이름, 로고(등록소요기간: 4개월)
- 등록디자인: 모양, 포장, 패턴, 색상, 장식 등을 포함한 제품의 외형 ((등록소요기간: 1개월)
- 특허: 발명품 및 제품(예: 기계 및 기계 부품, 도구, 의약품) (등록소요기간: 약 5년)
- * 해당 유형의 지식재산은 등록까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제3자와 아이디어 논의가 필요한 경우 기밀유지 계약을 사용해야 함

- 2가지 이상의 보호 유형 사용

- 단일제품에 2가지 이상의 보호 유형이 사용 가능하다.
- (예시)
- 이름과 로고를 상표로 등록하는 경우
- 등록디자인으로서 상품의 고유한 형태를 보호하는 경우
- 완전히 새로운 동작 부품 특허
- 제품 도면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사용

6) 기타 주의 사항

- 지식재산권별로 영국특허청이나 관련법령에서 다양한 사항이 요구되고 있으나 "New(처음 나온)", "Inventive(창의적으로 만들어진)

)", "Unique(독특하고)" 혹은 "Novel(새로운)"이라는 기본사항이 공통으로 요구된다.

-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등록 신청 시점에 관련 지식재산권이 Public에 공개가 돼 있지 않아야 한다.

- 해당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등록 신청서가 거절되는 경우의 많은 경우가 등록 신청 이전에 제3자나 Public에게 관련 지식재산권을 공개한 경우(예를 들어, 제3자와의 미팅 또는 Presentation 시, 학술지에 관련 내용 기고 혹은 언론((신문, 잡지 등)에 공개한 경우)으로 영국특허청에서는 이를 Public에 알려진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 따라서 영국 혹은 유럽에 등록을 염두에 두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경우 철저히 보안이 유지돼야 하며, 공개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련 지식재산권에 맞는 기밀유지협약서(Non-disclosure agreement)를 사전에 제3자와 맺어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 * 영국변호사에게 공개된 내용은 관련 영국 법령상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에 의거 기밀유지의 보호를 받음

- o 유럽지식재산청(EUIPO)에 등록된 공동체디자인, 영국 등록 디자인, 국제(EU) 은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 내 권리로 자동 승계되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 o 이행기간 이후 지재권 소진

- (영국 출시) IP 보호 제품이 영국에 출시되었다 하더라도 EEA 시장에서 IP 소유자의 권리를 소진하지 않는다.

- (EEA 출시) EEA 시장에 출시된 IP 보호 상품에 대한 권리가 영국에서 계속 소진된 것으로 간주된다.

9.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영국에서 유한회사의 철수 및 청산은 채무관계 등의 문제만 없다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진행될 수 있다. 1) 기업 철수를 위한 조건 ◦ 영국의 기업은 기업법(Companies Act 2006년)의 1003조에 의해 폐업할 수 있으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며,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폐업신청서(DS01)를 작성해서 Companies House에 제출하면 된다. - 지난 3개월간 주식을 거래하거나 매도하지 않았어야 함. - 지난 3개월간 기업의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야 함. - 청산 위협을 받지 않았어야 함 - 채권자와 관련 협약이 없어야 함(예: CVA, Company Voluntary Arrangement) 2) 기업 철수 신청 과정 ◦ 기업 철수 전 신청자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반드시 법적으로 철수 준비를 마쳐야 한다. - 이해관계자와 영국 관세청(HRMC) 철수 고지(DS01 송부) - 원칙에 따른 고용인 처리 - 자산 및 계좌 처리 ◦ 세부 처리 과정은 www.gov.uk/strike-off-your-company-from-companies-register/close-down-your-company에서 확인 가능하다. 3) 기업 철수 시 유의사항 ◦ DS01 서류 제출 시 아래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 과반의 등재이사 서명이 필요함. - 10파운드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 DS01 신청서의 복사본은 7일 이내에 세무서(HM Revenue & Customs), 채권자(Creditors), 직원 등의 관계자에게 반드시 보내야 함. 이를 어길 시 벌금 부과 대상임. 4) 기타사항 ◦ 기업 철수/폐업 이후 은행계좌명세서, 인보이스, 영수증 등 회사 관련 자료들을 7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영국 통계청이 2020년 6월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영국의 전체인구는 약 66,796,807명으로 추정되며, 그 중 잠재 소비 인구로 판단할 수 있는 16세~64세는 42,460,865명으로 약 63.6%를 차지한다.

다른 서구 국가와 마찬가지로 영국은 고령화된 사회이며 평균연령은 2010년 기준 39.5세에서 2020년 기준 40.5세이다. 고용 측면에서 영국의 15~64세 인구의 75%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68%보다 높다.

연령별 인구 현황

=====

- 0-4: 3,857,263 명
- 5-9: 4,149,852 명
- 10-14: 3,953,866 명
- 15-19: 3,656,968 명
- 20-24: 4,153,080 명
- 25-29: 4,514,249 명
- 30-34: 4,497,132 명
- 35-39: 4,395,667 명
- 40-44: 4,019,539 명
- 45-49: 4,402,122 명
- 50-54: 4,661,015 명
- 55-59: 4,405,908 명
- 60-64: 3,755,185 명
- 65-69: 3,368,199 명
- 70-74: 3,318,867 명
- 75-79: 2,325,296 명
- 80-84: 1,715,328 명
- 85-89: 1,042,090 명
- 90 이상: 605,181 명

<자료원 : 영국 통계청, Santander, 2021년 5월 조사 기준>

소비 성향

소비자들의 보수적인 성향과 높은 브랜드 충성도가 영국시장 진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과 확연한 차이가 없는 이상 소비패턴을 바꾸려 하지 않으므로 차별화 전략이 중요하다. 식품류 및 서적류, 아동의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높은 부가가치세(20%), 높은 마진의 유통구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관계로 소비자들은 주로 부활절(4월), 학교 개학 시기(1월, 9월), 성탄절(12월 말), 여름과 겨울의 정기적인 바겐세일 시즌을 이용해 상품을 구매한다. 바겐세일이 시작되면 평균적으로 정가의 30%를 할인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최대 80%까지 할인하기도 한다. 특히 성탄절 다음 날인 박싱데이(Boxing Day)는 전통적으로 연중 최대 세일이 이루어지는 날로 인식되며, 최대 90% 이상까지도 할인되기 때문에 영국인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사재기하는 연

중 최대 쇼핑 대목이기도 하다.

영국의 소비문화상 신중하게 구입한 뒤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구매하는 것을 싫어하며, 시간 낭비를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품과 서비스의 질이 오랜 기간을 거치며 입증된 브랜드를 선호하며, 이는 오래된 브랜드일수록 더 큰 신뢰를 보내는 영국인의 소비문화를 형성했다. 자국 시장에서 수십, 수백 년 이상 신뢰를 쌓은 전통 브랜드 선호는 자국산 선호 문화와도 직결되며, 이는 시장에 새로 진입한 신흥 브랜드가 차별을 받을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품 원산지 선택과 관련하여 영국인의 10명 중 6명이 영국산 원산지가 가격만큼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영국인들의 온라인 쇼핑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판매 역시 영국 시장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금융위기 이후 영국인들도 가격만을 중시하는 저가 선호 소비문화도 확산되고 있다. 브랜드 가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의류, 패션 시장이 이 같은 새로운 소비문화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초저가 소매 체인의 확산과 고가제품을 모방한 저가제품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는 영국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 비중이 한층 확대되었고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다양화되면서 평소 구매하던 것과는 다른 브랜드를 시도하는 등 새로운 소비행태를 보였다. 코로나19에 따라 높아진 실업률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가격 대비 성능(가성비)이 좋은 제품에 대한 선호도도 증가했다. 이에 더해 코로나 19 기간 중에도 웰빙, 친환경, 교육 관련 제품에 대한 선호는 꾸준히 이어졌다. 2021년 2분기 이후 이동제한 조치가 완화로 비필수 업종을 포함한 대부분의 상점이 영업을 재개하면서 민간소비가 증가하면서 경제 회복을 이끌고 있다.

한국 상품 이미지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점차 제고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삼성, LG는 스마트폰과 고급TV시장에서 현지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프리미엄 전자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우도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외 한국 중소기업 상품의 인지도도 아시아 국가의 저가 생산품이라는 인식보다는 품질에 기반을 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K뷰티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는 추세로 2020년 영국의 한국 화장품 수입액은 전년대비 24.8% 증가한 5,53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영국에서 인기 있는 K뷰티 제품은 스킨케어로, 한국의 단계별 스킨케어 트렌드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져 시내 한국 슈퍼마켓을 찾는 현지인이 많아졌으며 영국의 대형 슈퍼마켓에서 라면, 김치, 소스류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류에 대한 인지도는 과거에는 높지 않았으나 2012년 10월 1일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영국 음반차트 및 BBC방송 집계 싱글차트에서 수위를 차지한 이래 대중음악, 영화 등을 중심으로 영국인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2019년 방탄소년단(BTS)이 한국 가수 최초로 영국 웹블리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를 개최하였으며 BBC 방송 '더 그레이엄 노튼 쇼', '브리티시 갓 탤런트'에 출연하였다. 2020년에는 한국 영화 '기생충'이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BAFTA)에서 각본상과 외국어영화상을 받았다. 2021년 10월에는 영국의 주요 일간지인 The Times에서 한류는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나(Hallyu! How Korean culture conquered the world)라는 제목으로 한류의 성공 요인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기도 하였다.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점차 상승하고 있다. 특히 삼성, LG는 핸드폰과 TV 시장에서 연이은 판매 성공을 거두며 전자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현대차와 기아차도 고객평가에서 높은 평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대기업이 제품과 국가 이미지를 함께 홍보하지 않아 이들 제품을 한국산이라고 인지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그 외 중소기업 및 상품에 대한 인지도에서도 아시아 국가의 저가 생산품이라는 인식보다는 품질에 기반을 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로 인식하는 추세이다. 화장품의 경우 스킨케어 제품을 중심으로 언론에서 노출이 잦아졌으며 성분이 좋고 피부에 자극이 없어 영국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방탄소년단(BTS)의 런던 공연 등 한류 인기의 상승으로 K-beauty 상품이 젊은 여성층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철저한 회사 및 제품 소개 자료 구축

영국 바이어 초기 접촉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영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올바른 영어로 작성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다. 반드시 원어민의 감수를 받아 오타 없이 잘 작성된 카탈로그, 가격표(파운드 사용), 샘플 및 사용매뉴얼, 영문 홈페이지를 구비해야 하고, 자료는 논리적으로 정리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품의 우수성에도 영국 바이어의 초기 관심을 끌지 못해 수출로 이어질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충분한 바이어 조사

영국은 다른 유럽국가와 달리 자국의 제조업체가 거의 없이 수입에 의존하는 제품군이 많은 편이므로, 기존 거래 중인 공급업체에 대한 조사와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에 동일 품목이라도 상이한 영국의 시장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특히 부품류 수출의 경우, 영국의 제조업이 많이 축소되어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각종 부품을 직접 수입하지 않고 디스트리뷰터나 에이전트를 통해 공급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규모가 있고 유능한 디스트리뷰터나 에이전트 발굴이 중요하다.

3) 상담 시 시연할 샘플의 준비

세일즈 출장 시 기계 및 도구의 경우는 제품 성능을 시현하기 위해(핸드 캐리가 가능할 경우) 샘플을 지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세일즈 출장 이전에 영국 현지 바이어들이 원하는 모델, 제품군을 파악하여 미팅 전 샘플군을 구성한다면 성공적인 세일즈 출장이 될 수 있다.

4) 유능한 통역원 채용

상담 시 영어표현의 부적절한 사용 때문에 부정적인 상담 결과를 초래하는 예가 많다. 따라서 현지 사정에 밝고 영어가 유창한 통역원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KOTRA의 '세일즈 출장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현지 학생커뮤니티 홈페이지, 각 대학교 한인학생회 등을 통해 직접 통역원을 찾을 수 있다. 상담 장소(이동 거리)나 시간, 난이도, 통역지원 범위 등에 따라 통역료는 차이가 있으나 통상의 일일 통역료는 약 150파운드 수준이다. (9:00~17:00 근무시간 기준, 교통비/숙식비 별도)

5) 정확한 담당자 파악

정확한 수입(구매) 담당자를 파악하여 동 담당자의 개인 이메일 주소, 직통 전화번호 및 팩스 번호를 알아내야 한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영국 기업은 대부분 대표전화로 전화할 경우 리셉션 직원이 전화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간단하게 본인 회사소개와 통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하며 적합한 담당자를 바꿔 달라고 하거나 바꿔주지 않으면 이메일로 문의 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담당자 성명 및 이메일 주소를 문의해야 한다. 이때 이메일을 보내는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담당자에게 이메일이 전달되도록 해야한다.

대부분 중견 이상의 기업들은 세일즈, 마케팅, 구매 부문의 담당자가 별도로 있으며 품목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서도 담당자가 다를 경

우가 많으며 때에 따라서는 담당자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담당자하고 접촉 없이는 일의 진행이 전혀 안되며(담당자 부재 및 휴가 시 다른 직원이 대행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음) 담당자에게 권한이 많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담당자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규모가 작은 영국기업 접촉 시에는 구매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Managing Director(대표)를 직접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규모가 큰 기업의 경영진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여겨진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복장

복장은 검정, 진한 감색, 진한 회색과 같은 어두운 색상의 옷을 주로 입으며, 전통적인 세로의 가는 줄무늬도 자주 착용한다. 요즘은 금요일만 스마트 캐주얼(Smart Casual)을 허락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으나 비즈니스 상담에서는 전통적인 정장 착용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고급 호텔이나 음식점에서 식사할 경우에도 재킷과 넥타이, 그리고 구두(운동화 금지)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약을 한 후 dress code에 대해 기본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

2) 인사

영국인들은 제3자를 통해서 소개받는 것을 좋아하나, 만약 그것이 불가피한 경우 스스로 소개를 하는 것이 좋다. 보통 남성끼리는 자연스레 악수하며 상대 여성과는 주로 유럽식 인사(뺨을 대는 인사)나 가벼운 악수를 건넨다. 상대 여성이 취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대처하면 되며 유럽식의 경우 두 손으로 양어깨를 가볍게 감싸고 양쪽 뺨을 번갈아 대며 가벼운 입술 음을 낸다.

무슬림, 유대인 등 종교적, 민족적으로 다양한 영국사회의 특성상 특정 문화에서는 이성 간 신체접촉이 불가하므로 비즈니스 석상에서도 악수 등을 청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괜찮은지 먼저 물어보는 게 예의다. 인사를 할 때에는 날씨나 교통과 같은 흔한 주제에 대해 간단한 코멘트로 짧은 담소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생활이나 인적 사항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은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3) 선물

대부분 영국인들은 사업상 파트너나 동료와는 선물을 주고받지 않으나,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선물을 하는 경우는 있다. 이 경우에는 기념 문구를 담은 펜, 책, 와인, 샴페인 등의 품목부터 식사 대접 및 공연 티켓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유통업체나 학교, 기관 같은 경우는 규정상 개인 선물은 신고하게 되어있어 업체/기관 내 선물을 공유하거나 업체/기관 이름으로 기부하게 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크리스마스, 연말연시는 카드를 보내는 편이며, 만약 영국 업체로부터 먼저 선물을 받았을 경우는 선물에 대한 감사 카드를 보내는 것이 좋고 상황에 따라 업체가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 선에서 저녁을 초대하거나 답례하도록 한다. Card factory, Scribbler 등 다양한 카드를 판매하는 전문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보통 카드 안에는 간단한 문구와 서명만 하는 편이다.

영국 가정에 초대받았을 경우 와인, 꽃, 초콜릿 등을 선물한다. 양주의 경우는 취향의 차가 심한 편이어서 좋은 선물 품목은 아니다. 꽃을 선물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빨간 장미, 하얀 백합 또는 국화는 피하도록 한다.

영국인 가정에 머물 경우라면 한국에서 기념품을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미처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영국인 가정에 필요하거나 어울릴 만한 선물을 추후 우편으로 보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귀국한 후 영국인 가정에 감사 편지를 보내는 것도 예의이다. 영국인의 특성상 비싼 선물이 아니더라도 작은 선물에도 감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처럼 사소한 것에 신경을 씀으로써 영국인들로부터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다.

4) 약속

대부분의 회사들이 주 5일제 근무를 하며,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5시, 점심시간은 오후 12시에서 2시 사이이다. 약속은 보통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이내에 하는 것이 좋으며 약속을 하지 않고 직접 회사를 방문하는 것은 큰 결례이다.

또한 부활절(3월 말~4월 중순), 여름휴가 기간(7~8월)과 크리스마스와 새해(12월 중순~1월 첫째 주)에는 약속을 피하는 것이 좋다. 약속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만찬이나 비즈니스 네트워킹 리셉션과 같은 Social Event에 초대받을 경우에는 약속시간보다 15분 정도 늦게 도착하는 것도 예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오히려 일찍 가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대중교통 시설이 노후화된 관계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5) 외식 및 식사

대부분의 외식은 레스토랑, 펍(Pub), 카페 등에서 이루어진다. 펍에 갈 경우 보통의 경우 맥주 1파인트, 원할 경우 하프(1/2) 또는 서드(1/3) 파인트를 주문한다. 보통 차례로 번갈아 가며 한 사람씩 돈을 지불한다. 가격은 1파인트에 약 4~5파운드 수준이며 대표적인 맥주로는 스텔라, 크로넨버그, 포스터, 기네스 등이 있다.

한국과는 달리 선 채로 이야기하면서 마시는 것이 보통이며 푸짐한 안주보다는 가볍게 땅콩이나 감자칩(Crisps)을 선호한다. 식사 시간대에는 저렴하고 맛도 괜찮은 요리를 제공하는 펍들도 많다. 상대방을 초대할 시에는 비슷한 환경과 비슷한 직급의 사람들을 초대하며 초대받은 사람이 언급하지 않는 한 사업과 관계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호텔이나 유명한 레스토랑이 아닌 패밀리나 체인 레스토랑도 많이 위치해 있어 영국인들은 대부분 이런 곳에서 외식을 즐기는 편이다. 평균 1인당 점심시간 때는 10~15파운드 정도, 저녁 시간 때는 20~30파운드 정도의 가격이다. 또한, 보통 레스토랑들은 세트메뉴도 제공하여 조금 더 저렴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많이 위치해 있으며 모던 유러피안(프랑스식+영국식)의 요리를 하는 레스토랑도 흔한 편이다.

6) 호칭

영국에서는 신분에 따른 호칭을 제대로 부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영국인들 사이에서는 주로 이름을 부르지만, 처음부터 이름을 부르면 큰 실례이므로 상대방이 이름을 부르자는 제안을 해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한다. 여왕, 주교, 장군 등과 같은 신분에 따른 호칭이 있는 경우나 공식 행사의 경우(예: Mr. Chairman, The Commander-in-chief, The Prime Minister)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명함에 나와 있는 이름을 부르도록 한다.

명함의 이름을 부를 때 영어 이름이 '이름', '성' 순으로 된 점을 주의하고, 일반적으로 남성의 경우는 Mr. 여성의 경우는 결혼 관계가 확실치 않을 시 'Ms.'라는 타이틀과 성을 붙여 사용한다. 작위를 받은 남성의 경우 'Sir', 부인은 'Lady'라는 호칭을 쓰며 작위를 받은 여성의 경우 Dame을 붙인다. 그 외 Dr, Professor 등의 타이틀이 있다면 그대로 칭하는 것이 예의이다.

3. 주요상거래 플랫폼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1) Argos(https://www.argos.co.uk/) ○ 개요: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800여 개의 매장과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탈로그 유통기업으로 영국의 대형 슈퍼마켓 기업 Sainsbury's가 2016년에 인수하였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1972년, 42억 파운드('20. 3. 7. 기준), 약 29,000명 * Argos Limited 재무보고서 기준 ○ 주요 판매 품목: 전자제품, 완구, 보석류, 원예용품, 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다. ○ 특징: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6만 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하는 제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다. Bose, Beats, Dyson, LEGO, Nespresso 등 주요 브랜드와 협력하여 다양한 고객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2) Asos(https://www.asos.com/) ○ 개요: 영국의 온라인 패션 및 화장품 유통을 주로 하는 유통기업의 전자 상거래 플랫폼이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00년, 32.6억 파운드('20. 8. 31. 기준), 약 4,000명 * Asos PLC 재무보고서 기준 ○ 주요 판매 품목: 의류, 패션, 화장품 등을 전문으로 유통하고 있다. ○ 특징: 2000년 설립된 영국의 대표 온라인 패션 유통 플랫폼으로, 자체 브랜드뿐만 아니라 850개 이상의 브랜드를 소싱하여 판매하고 있다. 2016년 매출 14억 파운드에서 2020년 매출 33억 파운드로 매우 빠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해외 판매 비중이 50%를 넘는다. 영국, 미국, EU에 주문 처리 센터를 운영하면서 전세계 190여개국으로 배송을 하고 있다. 우수한 디자인과 가격 경쟁력으로 주로 젊은 소비자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3) Asda(https://www.asda.com/) ○ 개요: 영국 3대 슈퍼마켓 체인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1949년, 228.7억 파운드('19. 12. 31. 기준), 약 14.5만 명 ○ 주요 판매 품목: 식료품, 의류, 가정용품 등을 일반적으로 대형 슈퍼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 특징: 주요 품목은 식품이며 의류와 가정용 소비재도 판매한다. 식품의 경우 여타 유통채널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며 시장점유율 기준 영국 3위의 슈퍼마켓체인이다. 4) Currys PC World (www.currys.co.uk) ○ 개요: 전자제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 설립연도, 매출규모, 고용인원: 1952년, 44.5억 파운드('20. 5. 2. 기준), 19,927명('20. 5. 2. 기준) * Currys PC World 소유기업 DSG Retail Limited 재무보고서 기준 ○ 주요 판매 품목: 컴퓨터, 가전, 휴대폰 등 전자제품 전반을 판매한다. ○ 특징: 컴퓨터 매장으로 시작하여 TV, 세탁기, 카메라, 노트북, 주방용품 등 가전 전반을 취급하는 영국 최대 전자 상거래 사이트로 성장하였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을 모두 운영한다. 온라인 구매 후 매장 내 수령 등 소비자 편의에 맞춘 다양한 구매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5) Marks & Spencer (https://www.marksandspencer.com/) ○ 개요: 의류, 가구, 미용, 식품 등 종합 소비재를 유통하는 기업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동시에 운영하며 프리미엄 식품 유통으로도 유명하다. ○ 설립연도, 매출규모, 고용인원: 1926년, 91.7억 파운드('21. 4. 3. 기준), 약 85,000명 * Marks and Spencer plc 재무보고서 기준 ○ 주요 판매 품목: 의류, 가구, 미용, 꽃, 선물, 와인, 식품 등 소비재 전반을 온라인으로 유통하고 있다. ○ 특징: 의류, 가구, 미용, 식품, 선물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는 윈스톰 온라인 백화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과 의류부분 유통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에 지역 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독일 전자상거래 기업 Zalando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	--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기술적인 우수성을 입증한 사례

M사는 디지털 사인 시스템과 POP(Point of Purchase) 업계의 선두 주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 모바일 관련 특허를 포함, 모두 120여 개의 지적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이다. GD 마크 획득 및 다수의 수상 경력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K사 등 주요 통신사들과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을 포함한 1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동사는 자사 주력 상품에 대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기능 대비 가격 경쟁력 및 품질 안정성을 바탕으로 수출 성공을 이끌고 있으며 지속적인 첨단 신제품 연구개발에 전력하고 있다.

디지털 셋톱박스 개발업체인 H사의 경우도 기술력으로 영국 시장 진출에 성공한 기업의 또 다른 예라 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방송 매체의 디지털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1997년 제1세대 셋톱박스를 유럽에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유럽, 중동, 미국, 아시아에 걸친 전 세계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북아일랜드에 현지 법인을 세우고 마케팅 기능과 생산 기지의 기능을 수행하며 유럽 시장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H사의 이런 성공 비결은 가격 정책에 따른 성장전략보다는 축적된 뛰어난 기술력에 근거한 고품질의 자체 브랜드 제품 판매를 통한 시장 개척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D사는 일반화장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피부과 전문의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제품을 개발하여 유럽의 BB 제품과 함께 한국의 화장품으로는 최초로 영국의 최대 드럭 스토어인 '부츠 (Boots)'에 입점했다.

그 외에도 보안 통합 솔루션 제공 업체인 S사가 차별화된 홍채 인식 제품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영국에 1,350만 달러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바도 있다

2) 디자인 향상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

한국의 대표적 도자기 회사인 H사는 '도자기 명품화'를 선언한 후 명품 도자기 세트를 출시하여 국내는 물론 도자기의 본고장인 영국에도 수출에 성공했다. 이 회사는 우수한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지난 1995년에 디자인 스쿨 '프로아트'를 오픈했으며 각종 첨단 장비인 컴퓨터 색분해기, 드럼스캐너 등의 장비 지원과 디자인 부문의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해 왔다.

그러한 노력 끝에 디자인 분야에서 최고의 상인 '디자인 포장 상'을 받음으로써 디자인 경쟁력을 대내외적으로 평가받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동양적 분위기의 십장생 시리즈와 아라베스크 문양의 유럽 스타일은 이 회사만이 가진 디자인의 특징으로 유럽의 디자인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들은 현재 영국 주요 도자기회사에 OEM 수출을 하고 있으며 영국 최대의 명품 백화점 해롯의 고급 도자기 섹션에 자체브랜드 제품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 50여 개국에서 안정적인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3) 평판(Reference)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성공한 사례

제품을 구매하는 바이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짐작해 볼 수 있겠는데 처음 거래하게 되는 회사의 신뢰도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평판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영국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조 산업군의 비율은 매우 낮으며, 디자인, 금융, 컨설팅 등의 고급 서비스업들이 산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 많은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서 물려드는 제품정보의 홍수 속에서 회사나 제품의 신뢰도를 평가해야 하는 영국의 바이어들은 우선 의심부터 하고 든다. 따라서 수입 고려대상이 되는 공급업체의 경우 이미 다른 시장에서 대형 바이어로부터 획득한 평판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산업섬유를 생산하는 J사는 이러한 영국 바이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KOTRA의 평판을 아주 잘 이용하여 성공한 케이스이다. J사는 KOTRA 런던 무역관에 출장상담 지원을 신청했고 무역관은 당시 시장에서 유력한 바이어들인 6개사를 상담 주선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J사의 자체 인지도는 전무했고 가진 것은 출장자의 산업섬유에 대한 지식 하나뿐인 상황이었다. 이어진 거래에서 신용을 잘 지켜 그 중 5개사를 고정거래선으로 확보하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소개하여 바이어들에게 공급선의 신뢰성에 힘을 실어 준 것이 성공의 요인이 된 좋은 예이다.

화장품 생산 업체인 D사도 피부과 전문의를 통해 고기술 화장품을 개발하여 영국 최대 드럭 스토어에 입점했는데 최종적인 입점 성공의 요인은 이미 미국의 세포라사의 매장에 입점해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단시간에 단독매장을 갖게 되었다는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4) 정확한 시장조사를 통한 타겟 고객층과 유통채널 공략으로 성공한 사례

영국시장은 기존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 진출에 애로가 많은 시장으로 철저한 시장 진입전략을 세워야 한다. 런던무역관은 '19년 3월부터 H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제품 시장조사부터 진행, 고객 타겟에 맞는 고급화 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런던무역관 담당자의 도움으로 업체 별 타겟 및 니즈에 맞춰 개별 제안서를 작성하여 배포했고 바이어 별 개별 샘플링으로 빠른 피드백을 전달했다.

타 브랜드에 비해 가격대가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백화점, M&S 등 프레스티지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해로즈 백화점은 현재 판매 중인 마차 제품과의 차별성을 부각하여 분석하였으며, 매대 POG 구성까지 직접 제안하였다. 이 결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의 대표 명품 백화점 해로즈와 성공적으로 계약을 성사시켰고, 차 카테고리 내에서는 한국 브랜드 최초로 계약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현재 3개 블렌드 마차 및 세트 상품 1개, 신제품 RTD 입점 관련 상품 등록이 완료되었으며 추가 주문까지 마친 상태이다. H사는 영국에서 우리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함께 소비자에 큰 호응을 얻고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5)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 성공사례

○ 사례 1: 건강음료

C사의 제품은 건강식품에 해당하는 음료들이다. 한약 맛에 익숙한 한국의 소비자들에게는 이미 좋은 반응을 보이는 제품이나, 영국인에게는 생소하고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맛이라 영국시장 판매에 애로가 예상되었다.

실제, 초기 바이어들과의 상담 시 바이어들은 영국인에 익숙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시장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소량의 제품만을 매장에 비치해 소비자의 반응을 살펴겠다는 수동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더라도 판매가 불확실한 제품의 재고 부담 때문에 처음부터 대량 오더(컨테이너 분량)나 주기적인 오더가 불가하다고 했다. 바이어들의 요청사항인 소량의 주문에도 즉각적인 배달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때 C사 제품에 대한 구매를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시장 초기접근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런던 무역관은 C사에 물류창고를 이용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C사는 바이어들의 소량 오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일정 물량을 런던 무역관의 물류 창고에 보관하고, 바이어들의 요청 시 즉각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이로써 영국의 바이어들은 생소한 제품에 대한 재고부담 없이 초기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비하고 난 후, 우리 무역관은 잠재 바이어들과의 상담 시 이 부분을 적극 홍보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세일즈 활동을 펼쳤다.

잠재바이어 중 영국의 메이저 건강식품 판매점인 whole Foods, Holland &Barrett, Booths등에 납품하는 Unione Trading사와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MOU의 주요 내용은 C사에서 영국에 재고를 보관하고 Unione Trading사에서 필요시마다 소량 구매하는 것이었다. MOU 체결 후 재고부담을 해결된 Unione Trading사는 C사의 제품을 영국시장에 알리기 위해 Food &Organic 전시회에 C사의 제품을 전시했으며, 영국인들의 제품에 대한 반응을 지속해서 C사와 공유하여 새로운 제품개발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바이어의 협력은 C사에서 런던 무역관의 공동물류창고를 활용하여 바이어들에게 재고 부담을 들어주어 가능할 수 있었다.

C사는 런던 무역관의 공동물류 창고활용을 주요한 마케팅 포인트로 삼아 마케팅을 실시하여, 공동물류서비스 이용을 시작한 후 4개월 만에 수출실적이 없었던 영국에서 2만 불 이상의 처녀 수출을 달성할 수 있었다.

○ 사례 2: 패션 의류 원단

M사는 영국 패션 원단 시장에 관심이 많았으나 폐쇄적인 성향이 강한 영국시장에 적극적인 시장 공략에 엄두를 못 내고 있던 차나, 2012년 7월 한-EU FTA 때문에 관세가 폐지된 점을 장점으로 인식, 코트라의 공동물류패키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

영국의 중저가 패션 원단시장은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중국의 원단 생산업체들이 이미 영국의 중저가 패션원단시장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어 전반적인 패션 원단의 가격이 매우 낮아진 상태여서 우수한 품질에도 치열한 가격경쟁 때문에 한국의 원단업체는 특정 아이템을 제외하고는 영국에 수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M사는 코트라 런던 무역관 지사화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영국 패션 원단의 메카라 할 수 있는 맨체스터, 레스터 지역의 업체들과의 꾸준한 미팅을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쳤던 결과 M사 R사 F사 P사로부터 약 12만 불의 첫 수출을 달성하는 쾌거를 얻을 수 있었다.

영국의 바이어들은 M사의 원단을 매우 마음에 들어 했으며 FTA로 인한 관세폐지로 어느 정도 가격경쟁에서도 중국제품과 동등한 입장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영국 바이어들은 항시 발 빠르게 움직이는 패션산업은 주문 시 걸리게 되는 Lead Time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장기적 거래는 힘들 것이라며 우려를 했다. 그러나 바이어 R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런던 무역관에서 제공하는 물류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자 R사는 물류서비스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곧바로 추가 오더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첫 거래 후 R사는 M사로부터 장기적인 안목에서 원단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이는 런던 무역관에서 제공하는 물류서비스가 상

당히 큰 역할을 했다.

6) 현지에서의 한국 식품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영국 시장 진출에 성공한 사례

한국 문화의 인기가 영국에서도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한국 식품과 식문화에 대한 현지인들의 호감도가 상당히 높다. 런던무역관은 현지인들이 한국 식품이 건강에 좋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점에 착안, 웰빙과 관련된 특정 신선 식품 취급 바이어를 발굴 및 협업 구축에 집중했다.

2021년 초 코로나19로 인해 바이어와의 화상상담을 진행하면서 치즈 및 어묵을 포함한 떡볶이 제품군이 유제품 수요가 높은 영국 시장과 잘 맞아 떨어질 것이라 판단하여 공격적으로 마케팅 의사를 전달했다. 또한 한국 식품에 관심이 높아진 현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만한 브랜드 및 독특한 패키징으로 감성을 자극하여 관심도를 더 높였다.

현지에서의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과 현지인의 입맛, 그리고 식생활 문화에 대한 세분화된 시장조사를 통해 약 25,000달러의 첫 성약을 달성한 사례이다.

5.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1) 일반 여행 및 방문객: 6개월 무비자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사증면제협정 및 쌍방주의에 의거, 6개월 동안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유급, 무급에 상관없이 일은 할 수 없다. 영국 입국심사 시에는 영국 체류에 필요한 충분한 비용과 방문지(숙소 주소) 및 여행 계획, 그리고 한국 귀국 일정 등에 관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입국 허가 여부와 체류 기간에 관련된 사항들은 이때 결정된다. 출국 전에 영국해외공관(주한 영국대사관)으로부터 직접 장기 체재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체류 기간 연장을 원하면 체류 기한 만료 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Home Office(Immigration Dept.)에 송부하거나, 여권을 지참하여 각 지방 이민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연장 요청을 해야 한다.

2) 출장자

영국에서의 회의 참석, 사업상 협상 또는 재화/용역 구매 계약 체결, 사실 관계조사 등 일시적인 활동을 하면 일반 여행객과 같이 6개월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만약, 재화나 용역을 직접 일반에게 판매하는 등의 생산적인 노동을 희망하면 노동 허가(Work visas)가 필요하다.

또한 재화나 용역을 일반에게 판매하지 않더라도, 영국기업과 연관되어 실제 노동을 수반하게 되면 비즈니스 방문 비자(최대 6개월)를 미리 발급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3) 출입국 심사

2019년 5월 20일부터 런던 히스로 및 게트워 공항, 파리 · 브뤼셀 유로스타역 등 전자입국게이트가 설치된 전역에서 한국인에 대해 자동 입국심사(E-passport gate)제도가 적용된다. 자동입국심사 대상은 18세 이상 한국인 중 전자여권 소지자와 성인 보호자와 동행하는 만 12~17세 청소년이다. 단, 최대 6개월의 단기 교육을 위한 방문자, Tier 5 사증 카테고리 중 스포츠, 예술 후원 증명서 소지자, 노동 허가서 소지자, 영국에서 영구 결합을 모색하는 EEA 국적자의 가족 구성원은 이민관 직원 대면 인터뷰를 거쳐 입국 도장을 받아야 한다.

4) 코로나19 관련 사항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영국 입국 시 취해야 할 추가 조치가 갑작스럽게 발표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입국전에는 아래 링크의 영국 입국 관련 안내 영국 정부 홈페이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https://www.gov.uk/guidance/travel-to-england-from-another-country-during-coronavirus-covid-19>

영국 정부는 2021년 12월 4일 긴급발표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해외입국자 대상 강화된 방역지침을 도입하였다.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2021년 12월 7일 이후 영국에 입국하는 경우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2세 이상은 반드시 출발시간 기준 2일 이내 PCR 또는 LFD 코로나19 검사(Pre-Departure Covid Tests)를 받아야 한다. 백신을 접종한 경우 한국에서 영국에 입국할 시 진행해야 할 사항은 승객위치확인서 작성 및 제출, 입국 전 진단검사(PCR, LAMP, LFD 등), 입국 2일 차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PCR) 및 음성확인 시까지 자가격리 등이다.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항공기 탑승 불가하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상기 조치 이외에 자가격리 10일이 필요하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1) 외화 반·출입 한도

◦ 10,000파운드 이상의 외화를 소지하고 영국 출입국 시에는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는 지폐, 동전, 은행환어음, 수표(여행자 수표 포함)를 포함한다.

◦ 신고방법 안내

- 온라인: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bringing-cash-into-uk>)를 참고하여 여행일 포함 72시간 전까지 신고

* 10,000유로 이상의 외화를 소지하고 노던 아일랜드 출입국 시에는 링크(<https://www.gov.uk/guidance/taking-cash-in-and-out-of-northern-ireland#how-to-declare>)를 참조할 수 있다. 북아일랜드와 EU 간 이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북아일랜드와 GB(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간 이동 시에는 신고가 필수이다.

* 해당 규정을 따르지 않을 시 5,0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 휴대품 면세 한도

◦ 휴대물품의 정의

-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이 상업용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여행자가 개인용 또는 선물용으로 직접 운반하는 물품이다.

◦ 휴대물품 범위

(GB)-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 390파운드 이내의 물품, 맥주 42litres, 와인 18litres, 담배 200개비(10갑)의 경우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기준 이상일 경우 세관 신고를 해야 한다.

(북아일랜드)-EU 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 390파운드 이내의 물품, 맥주 16litres, 와인 4litres, 담배 200개비(10갑)의 경우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기준 이상일 경우 세관 신고를 해야 한다.

◦ 세관 신고

- 영국에 도착하기 전 세금이나 관세를 지불하는지 확인하여 면세 한도 초과분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 신고는 영국 도착 72시간 전부터 가능하다.

- 관세 확인 및 세관신고는 링크(<https://www.tax.service.gov.uk/check-tax-on-goods-you-bring-into-the-uk/previous-declaration>)에서 확인절차를 따르면 된다.

6.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전화번호	+44 20 7227 5500
주소	60 Buckingham Gate, London SW1E 6AJ
홈페이지	http://gbr.mofa.go.kr
비고	koreanembnuk@mofa.go.kr

◦ 주영 한국문화원

전화번호	+44 20 7004 2600
주소	Korean Cultural Centre UK, Grand Buildings, 1-3 Strand, London WC2N 5BW
홈페이지	http://london.korean-culture.org/ko/welcome
비고	info@kccuk.org.uk

◦ 한국은행

전화번호	+44 20 7382 0580
주소	8th Floor, Tower 42, 25 Old Broad Street, London, EC2N 1HQ
홈페이지	http://www.bok.or.kr
비고	boklondon@bok.or.kr

◦ 금융감독원

전화번호	+44 20 7397 3990
주소	4th Floor, Aldermay House, 10-15 Queen Street, London EC4N 1TX
홈페이지	http://www.fss.or.kr/fss/kr/main.html
비고	london@fss.or.kr

◦ 한국관광공사

전화번호	+44 20 7321 2535
------	------------------

주소	80 Haymarket, St. James's, London SW1Y 4TE UK
홈페이지	https://gokorea.co.uk/
비고	london@gokorea.co.uk

◦ 한국수출입은행

전화번호	+44 20 7562 5500
주소	3rd Floor, Moorgate Hall, 155 Moorgate, London EC2M 6XB
홈페이지	https://www.koreaexim.go.kr/site/uk
비고	kexim.london@keximbank.co.uk

◦ 한국산업은행

전화번호	+44 20 7426 3550
주소	99 Bishopsgate, London EC2m 3XD
홈페이지	https://www.kdb.co.kr
비고	london@kdb.co.kr

◦ 한국투자공사

전화번호	+44 20 7562 0060
주소	Bartholomew lane, London, EC2N 2AX
홈페이지	https://www.kic.kr/ko/index.jsp

〈자료원 : KOTRA 런던 무역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국제통상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

전화번호	+44 20 7215 5000
주소	Old Admiralty Building, Admiralty Place, Whitehall, London SW1A 2DY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international-trade

◦ 외무국제개발부(Foreign, Commonwealth and Development Office)

전화번호	+44 20 7008 5000
------	------------------

주소	King Charles St, Westminster, London SW1A 2AH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foreign-commonwealth-office
비고	영국 국제개발부(DfID)를 외무부(CFO)에 통합(2020.6)

◦ BBC(영국 국영방송국)

전화번호	+44 37 0010 0222
주소	Broadcasting House, Peel Wing, Portland Place, London, W1A 1AA
홈페이지	https://www.bbc.co.uk

◦ 영국산업연맹(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전화번호	+44 20 7379 7400
주소	Cannon Place, 78 Cannon Street, EC4N 6HN London, United Kingdom
홈페이지	https://www.cbi.org.uk
비고	enquiries@cbi.org.uk

◦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전화번호	+44 84 5601 3034
주소	1 Drummond Gate, Pimlico, London SW1V 2QQ
홈페이지	https://www.ons.gov.uk
비고	info@ons.gov.uk

◦ 공업표준관리청(BSI Group)

전화번호	+44 34 5080 9000
주소	389 Chiswick High Road, London, W4 4AL
홈페이지	https://www.bsigroup.com/en-GB/

<자료원 : KOTRA 런던 무역관>

7.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0.75파운드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널드 빅맥)	단품	4.250
2	식품	비빔밥(불고기 돌솥)	1인분	13.200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11.900
4	식품	신라면	1봉지	1.090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4.400
6	음료	생수(마트, 최저가)	500ml	0.870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330ml	1.130
8	의료	항생제	12정	1.380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2.060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출퇴근 시간, 1존-3존 이동 기준)	4.500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4.270
12	서비스	헤어컷(시내 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66.700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960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230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17.320
16	여가	담배(말보로 Gold KS 20)	1갑	17.210
17	여가	소주 (한식당내 판매최저가)	360ml	14.000
18	임금	최저임금	법정최저(25세이상 기준, 시간당)	11.880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개년) 수업료	연간	27088.00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0.100

<자료원 : 런던무역관 자체조사>

8.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영국의 화폐단위는 파운드 스텔링(Pound sterling)이다. 코드는 GBP이며, 화폐단위는 페니(1p), 펜스(페니의 복수형), 파운드(£)로 나뉜다. 동전으로는 1p(페니), 2p(펜스), 5p(펜스), 10p(펜스), 20p(펜스), 50p(펜스)가 있고 지폐로는 £ 1(파운드), £ 2(파운드), £ 5(파운드), £ 10(파운드), £ 20(파운드), £ 50(파운드)가 있다. 기본적으로 1페니=£ 0.01, 2펜스=£ 0.02, 5펜스=£ 0.05, 10펜스=£ 0.1, 20펜스=£ 0.2, 50펜스=£ 0.5이다.
------	---

환전방법

런던 중심부 곳곳에서 환전소(Foreign Exchange)를 쉽게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환전소는 별도의 수수료(Commission)는 부과하지 않으나, 서로 각각 다른 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환전 시 2~3명의 환전상에게 물어본 후 환율 비교를 한 후 환전하도록 한다.

신용카드 이용

런던의 경우 대부분의 상점과 ATM에서 VISA, MASTER, MAESTRO 등의 글로벌 카드를 수용하며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다. 한편 신용카드를 이용해 ATM에서 환전 가능하나, 수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나. 교통

교통상황

영국의 도로는 좁고 복잡해서 교통체증이 심하다.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런던의 경우 교통 혼잡 구역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어 이 구역을 지나는 차들은 교통혼잡비(congestion charge)를 내야 한다.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시내 교통량 증가를 우려하여 2020년 6월 22일부터 요금이 일시적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적용 일시도 변경되었다. 변경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적용 일시: 매일(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요금: 하루 15파운드

버스

컨택리스(Contactless) 교통카드의 활성화로 런던 버스 기사들은 더이상 현금으로 요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이스터(Oyster) 카드 사용을 권장하며, 런던 시내 이용요금은 오이스터 카드로 편도 £1.55이다.

영국 버스는 탈 때 한번 찍고 내릴 때는 카드를 찍지 않는다. 환승은 처음 승차 시 기준으로 한 시간 이내에 같은 카드를 사용했을 때 무제한으로 가능하며 트램에도 적용된다.

런던 외 지역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목적지별로 버스 이용 요금이 다르므로 이용하는 노선의 버스회사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택시

영국 택시는 3단계의 시간 할증 요금제가 적용된다. 1구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05:00~20:00, 2구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20:00~22:00, 주말 05:00~22:00, 3구간은 매일 밤 22:00~05:00 및 공휴일이 해당된다.

구분	이동시간	1구간	/	2구간	/	3구간
1마일	약 6~13분	£ 6.20~9.60	/	£ 6.20~9.60	/	£ 7.00~9.60
2마일	약 10~20분	£ 9.40~15.0	/	£ 9.80~15.0	/	£ 10.60~15.00
4마일	약 16~30분	£ 16.00~24.00	/	£ 18.00~24.00	/	£ 18.00~28.00
6마일	약 28~40분	£ 25.00~31.00	/	£ 31.00~34.00	/	£ 31.00~34.00

히드로 공항~런던 시내는 약 30~60분이 소요되며, 가격은 약 £ 49.00~92.00이다.

최저 운임은 £ 3.20로 택시 이용 시 항상 적용된다.

* 자료: TRANSPORT FOR LONDON (<https://tfl.gov.uk/>)

지하철(Tube)

런던 지하철(London Underground)은 1~9존(Zone)으로 지역을 구분한다. 1존이 시내 중심부를 나타내며 총 12개(DLR 포함)의 노선으로 운영되며, 역에서 티켓(종이)을 현금이나 카드로 구매하거나 선불식 교통카드(Oyster card)로 이용이 가능하다.

○ Oyster Card(오이스터 카드)

- 런던 내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전차 등) 이용 시 사용하는 선불식 교통카드
- 온라인, 오프라인(지하철 역)에서 구매 가능(보증금: 5파운드/지하철역에서 카드 반납 시 보증금과 함께 충전 잔여금 환불가능)
- 요금(2021년 5월 기준, 향후 변동 가능)

오이스터 카드 이용 요금 (편도)

구분	Off-Peak / Peak
----	-----------------

Zone 1	£ 2.40 / £ 2.40
--------	-----------------

Zone 1~2	£ 3.00 / £ 3.00
----------	-----------------

Zone 1~3	£ 3.40 / £ 2.80
----------	-----------------

Zone 1~4	£ 4.00 / £ 2.90
----------	-----------------

Zone 1~5	£ 4.80 / £ 3.20
----------	-----------------

Zone 1~6	£ 5.30 / £ 3.30
----------	-----------------

Zone 2~6	£ 5.30 / £ 3.30
----------	-----------------

현금 (편도)

구분	어른 / 어린이
----	----------

Zone 1	£ 5.50 / £ 2.70
--------	-----------------

Zone 1~2	£ 5.50 / £ 2.70
----------	-----------------

Zone 1~3	£ 5.50 / £ 2.70
----------	-----------------

Zone 1~4	£ 6.00 / £ 3.00
----------	-----------------

Zone 1~5	£ 6.00 / £ 3.00
----------	-----------------

Zone 1~6 £6.00 / £3.00

Zone 2~6 £6.00 / £3.00

* Peak Time(월~금): 06:30~09:30, 16:00~19:00

다. 통신

핸드폰

통신업체에 가입 후 정기 사용료(후불)를 지불하거나 선불 충전카드(USIM)를 사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선불 충전카드는 가입이 필요 없고, 상점에서 USIM 카드 구입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후불방식보다는 다소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영국의 주요 무선통신업체로는 EE, O2, Vodafone, Three 등이 있는데, 시내 곳곳에 지점들이 있으므로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원하는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인터넷(와이파이)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전 세입자가 사용하던 서비스를 그대로 넘겨받은 후 명의만 바뀌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신청 및 가설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신규로 가입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가격 등을 비교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통신업체들이 인터넷+유선전화를 하나로 묶은 패키지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패키지 가격은 통신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15~30파운드이다. 일반적으로 최소 계약기간은 1년이며, 도중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한국과는 달리 영국은 인터넷 신청을 하면 보통 신청 후 2~4주 후에나 설치되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라. 관광명소

◦ 국립 미술관(The National Gallery)

도시명	London
주소	Trafalgar Square, London WC2N 5DN
운영시간	토~목: 10:00~18:00 금: 10:00~21:00
휴무일	휴관일: 1월 1일, 12월 24~26일
명소소개	1824년 조지 4세의 요청에 따라 영국 정부가 38점의 미술 작품을 구매하면서 시작된 내셔널 갤러리는 현재 2,300점 이상의 서유럽의 그림들을 소장하고 연간 약 500만 명이 관람하는 런던 최고의 미술관이다. 1250~1900년 사이의 서유럽 미술품을 주로 소장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르네상스 시기의 이탈리아, 17세기 스페인 작품들이 유명하며 전시관은 4개 관 46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고	전화: +44 020 7747 2885 홈페이지: https://www.nationalgallery.org.uk/ 코로나19로 인해 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 자연사 박물관(Natural History Museum)

도시명	London
주소	Cromwell Rd, Kensington, London SW7 5BD
운영시간	매일: 10:00~17:50
휴무일	휴관일: 12월 24~26일
명소소개	사우스 켄싱턴에 위치해 있는 자연사 박물관은 지구 상에 있는 동식물들의 역사를 모아 놓은 곳으로 대영 박물관에서 분리해 1881년에 개관하였다. 영국 정부가 처음부터 박물관 건립을 목적으로 지은 건축물로 건물 자체의 아름다움으로도 유명하다. 박물관에는 거대한 공룡 화석이 많아 학생들과 아이들이 좋아하고, 겨울엔 박물관 옆쪽에 스케이트장을 개시한다. 그 외에도 5,500만 동물, 2,800만 곤충, 900만 화석, 50만 개 이상의 암석 등이 전시되어 있다.
비고	전화: +44 020 7942 5000 홈페이지: http://www.nhm.ac.uk/ 코로나19로 인해 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 사치 갤러리(Saatchi Gallery)

도시명	London
주소	Duke of Yors HQ, King's Rd, Chelsea, London SW3 4RY
운영시간	매일: 10:00~18:00
휴무일	국경일
명소소개	Contemporary Art의 대부로 불리는 Charles Saatchi에 의해 1985년 설립, 유명한 현대 예술가들 대신 알려지지 않은 신인 예술가 및 YBA(Young British Artists)의 발굴과 전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Charles Saatchi는 1988년 데미안 허스트가 16인의 골드스미스 컬리지 학생들과 기획한 전시회 이후 YBA의 작품에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신인 예술가 발굴을 시작하였으며, Saatchi Gallery는 90년대 영국 Contemporary Art의 산실 역할을 한다. 설립 당시의 위치는 런던 북서부의 오래된 페인트 공장이었으나 2008년 10월 Chelsea에 위치한 Duke of York 빌딩으로 이전하였다. 대표적인 컨템포러리 아트 Auction house인 Phillips de Pury and Company와 협력, 갤러리 내부에 신예 아티스트만을 위한 Phillips de Pury and Company 관을 운영하는 등 유망한 신진 미술가 발굴에 힘쓰고 있다.
비고	전화: +44 020 7811 3070 홈페이지: https://www.saatchigallery.com/ 코로나19로 인해 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 과학 박물관(Science Museum)

도시명	London
주소	Exhibition Rd, Kensington, London SW7 2DD
운영시간	매일: 10:00~18:00
휴무일	휴관일: 12월 24~26일

명소소개	1851년에 열린 제1회 만국박람회의 과학기술 관련 전시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1857년에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현 빅토리아 앨버트 미술관) 한쪽에 예술과 과학기술 전시부를 개설했다. 1964년 현재 위치로 옮겼으며, 1909년부터 과학 부문을 독립하여 현재 이름으로 바꾸었다. 영국의 과학, 기술, 의학 발달사를 대표하는 중요한 기구, 기계류의 실물 등 산업혁명 관련 자료 전시되었다. 교육에 초점을 맞춰 놓은 박물관이며, 만지고 듣고 볼 수 있는 재미가 있다.
비고	전화: +44 020 7942 4000 홈페이지: https://www.sciencemuseum.org.uk/ 코로나19로 인해 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 대영 박물관(British Museum)

도시명	London
주소	Great Russell St, Bloomsbury, London WC1B 3DG
운영시간	10:00~17:30
휴무일	휴관일: 1월 1일, 12월 24~26일
명소소개	1753년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이자 영국 최대의 국립 박물관으로 현재 약 700만 점 소장하고 있다. 1753년 왕립 학술회장을 역임한 저명한 의사인 한스 슬론경 사망 후 그의 7만 점에 이르는 고미술 및 방대한 소장품을 정부가 매입, 로버트 코튼경의 장서와 옥스퍼드의 백작 로버트 할리의 수집품들을 합해 1759년부터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94개의 전시실로 나누어 이집트와 그리스, 로마 등지에서 발굴된 귀중품들과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지로부터 온 광범위한 수집품들을 전시 중이다. 주요 전시물로는 1802년 프랑스에서 넘겨받은 상형문자를 해독하게 된 로제타 스톤(Rosetta Stone)을 비롯해 헨델의 메시아 원본, 이집트의 미이라 및 라머 니즈 2세 석상,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대헌장(Magna Carta), 셰익스피어의 친필 원본,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본, 이집트의 고고학 자료, 1816년에 수집한 엘긴 대리석 조각, 앗시리아의 날개 달린 황소상 등이 있다. 그 외 성서의 알렉산드리아 사본, 색슨의 연대기, 마그나카르타 등 옛 인쇄, 제본의 견본들은 고대 문헌으로서의 가치와 의미가 매우 높다. 2000년 11월 400m에 이르는 한국관(67전시실) 신설, 구석기 유물부터 청자, 백자 칠보 자개함, 국보급 보물과 조선 시대 초기 작품으로 사천왕상 등을 비롯하여 조선 후기 미술품 250여 점을 전시 중이다.
비고	전화: +44 020 7323 8000 홈페이지: https://www.britishmuseum.org/ 코로나19로 인해 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자료원 : KOTRA 런던 무역관>

마. 식당

- 현지식당

◦ 디너 바이 헤스톤블루멘탈(Dinner by Heston Blumenthal)

도시명	London
전화번호	020 7201 3833
주소	Mandarin Oriental Hyde Park 66 Knightsbridge, London SW1X 7LA
가격	약 50달러

영업시간	매일: 12:00~14:30, 18:30~22:30
휴무일	-
소개	하이드파크 남단에 위치, 미술랭가이드 2스타
비고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여부 및 시간, 판매타입(테이크아웃, 배달, 매장내식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 버너스 터번(Berners Tavern)

도시명	London
전화번호	020 7908 7979
주소	Berners tavern 10 berners street London W1T 3N
가격	약 45달러
영업시간	월~금: 07:00~10:30, 12:00~24:00 토~일: 07:00~16:00, 17:00~24:00
휴무일	-
소개	옥스퍼드 서커스와 토트넘코트역 사이에 위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비고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여부 및 시간, 판매타입(테이크아웃, 배달, 매장내식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 카페 모니코(Cafe Monico)

도시명	London
전화번호	020 3727 6161
주소	39-45 Shaftesbury Avenue, London, W1D 6LA
가격	약 17달러
영업시간	월~목: 11:30~24:00 금: 11:30~01:00 토: 10:00~01:00 일: 10:00~24:00
휴무일	-
소개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요리를 아우름. 소호에 위치
비고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여부 및 시간, 판매타입(테이크아웃, 배달, 매장내식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 아이비 레스토랑(Ivy Restaurant)

도시명	London
-----	--------

전화번호	020 7836 4751
주소	1-5 West Street, London, WC2H 9NQ
가격	약 20달러
영업시간	월~금: 12:00~23:30 토: 12:00~23:30 일: 12:00~22:30
휴무일	-
소개	레스터스퀘어 근처에 위치, 영국식 레스토랑
비고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여부 및 시간, 판매타입(테이크아웃, 배달, 매장내식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 포피스 피쉬앤칩스(Poppies Fish and Chips)

도시명	London
전화번호	020 7734 4845
주소	55-59 Old Compton St, Soho, London W1D 6HW
가격	약 17달러
영업시간	월~목: 11:00~23:00 금~토: 11:00~23:30 일: 11:00~22:30
휴무일	-
소개	런던에서 피쉬앤칩스로 가장 대표적인 음식점 중 하나
비고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여부 및 시간, 판매타입(테이크아웃, 배달, 매장내식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 칸델라 티 룸(Candella Tea Room)

도시명	London
전화번호	020 7937 4161
주소	34 Kensington Church Street, London, W8 4HA
가격	약 27달러
영업시간	월~금: 10:00~18:00 토~일: 10:00~19:00
휴무일	-
소개	영국 애프터눈티를 즐길 수 있는 작고 빈티지한 카페

비고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여부 및 시간, 판매타입(테이크아웃, 배달, 매장내식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	--

〈자료원 : KOTRA 런던 무역관〉

- 한국식당

○ 아리랑(Arirang)

도시명	London
전화번호	020 7437 6633
주소	31-32 Poland Street London W1F 8QT
가격	약 12달러
영업시간	월~금: 12:00~15:00, 18:00~23:00 토: 12:00~15:00, 18:00~23:00 일: 12:30~15:30, 17:30~22:30
휴무일	-
소개	삼겹살 포함 각종 고기 구이
비고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여부 및 시간, 판매타입(테이크아웃, 배달, 매장내식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 김치(Kimchi)

도시명	London
전화번호	020 7430 0956
주소	71 High Holborn, London WC1V 6EA
가격	약 10달러
영업시간	월~금: 12:00~15:00, 17:00~22:30 토: 12:00~22:30 일: 12:00~22:00
휴무일	-
소개	퓨전한식
비고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여부 및 시간, 판매타입(테이크아웃, 배달, 매장내식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 아사달(Asadal)

도시명	London
전화번호	020 7430 9006
주소	224 High Holborn, London WC1V 7DA

가격	약 13달러
영업시간	월~토: 12:00~15:00, 18:00~23:00 일: 6:00~22:30
휴무일	-
소개	Holborn역 근처, 삼겹살이 인기
비고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여부 및 시간, 판매타입(테이크아웃, 배달, 매장내식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 서울 베이커리(Seoul Bakery)

도시명	London
전화번호	020 7248 8777
주소	14 Great Russell St, Bloomsbury, London WC1B 3NH
가격	약 8달러
영업시간	월, 수~일: 11:00~15:30, 17:00~19:30
휴무일	화요일
소개	토티넘 코트역 근처, 합리적인 가격
비고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여부 및 시간, 판매타입(테이크아웃, 배달, 매장내식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 요리(YORI)

도시명	London
전화번호	020 7836 3145
주소	15 Catherine St, Covent Garden, London WC2B 5JZ
가격	약 8달러
영업시간	월~일 : 12:00~23:00
휴무일	없음
소개	코벤트 가든 근처, 합리적인 가격, 다양한 음식
비고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여부 및 시간, 판매타입(테이크아웃, 배달, 매장내식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자료원 : 무역관 자체 검색〉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더 딜리 피카딜리(The Dilly Piccadilly)

도시명	London
주소	21 Piccadilly, London, W1J 0BH
전화번호	020 7734 8000
홈페이지	https://thedillylondon.com/
숙박료	약 365달러
소개	피카딜리에 위치한 5성급 호텔
비고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 르네상스 찬스리코트 런던(Renesance Chancery Court)

도시명	London
주소	252 High Holborn, London, WC1V 7EN
전화번호	020 7781 8888
홈페이지	https://www.rosewoodhotels.com/en/london
숙박료	약 525달러
소개	홀본 지역에 위치한 5성급 호텔
비고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 랑카스터 테라스 런던(Lancaster Terrace)

도시명	London
주소	Lancaster Terrace, London, W2 2TY
전화번호	020 7551 6000
홈페이지	https://www.royallancaster.com/
숙박료	약 325달러
소개	하이드파크 근처에 위치한 5성급 호텔
비고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자료원 : 무역관 자체 검색〉

- 게스트하우스

◦ 움бат 호스텔(Wombat hostel)

도시명	London
주소	7 Dock St, Whitechapel, London E1 8LL
전화번호	020 7680 7600
홈페이지	https://www.wombats-hostels.com/
숙박료	약 54달러
소개	화이트채플에 위치
비고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 소호스텔(SoHostel)

도시명	London
주소	91 Dean St, Soho, London W1D 3SY
전화번호	020 8821 5154
홈페이지	https://www.sohostel.co.uk/
숙박료	약 44달러
소개	토티엄 코트역 근처에 위치
비고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 클링크78(Clink78)

도시명	London
주소	78 Kings Cross Road, London WC1X 9QG
전화번호	020 7183 9400
홈페이지	https://www.clinkhostels.com/
숙박료	약 60달러
소개	킹스크로스역 근처에 위치
비고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 제너레이터 런던(Generator London)

도시명	London
주소	37 Tavistock Pl, Saint Pancras, London WC1H 9SE
전화번호	020 7388 7666

홈페이지	https://staygenerator.com
숙박료	약 35달러
소개	킹스크로스역 근처에 위치
비고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 여부 확인 필요

〈자료원 : KOTRA 런던 무역관〉

사. 치안

치안상황

여행 유의 단계: 외교부는 전 국가지역에 대해 5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2021.6.15.(화)까지 연장한 상태(2020.5.25. 기준)

2018년 8월 14일(화) 오전 7시 37분경 영국 국회의사당(Houses of Parliament) 인근에서 차량 한 대가 의회 외부 보호벽을 들이받아 일부 보행자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 경찰 당국은 해당 사건을 테러사건으로 간주하고 일대를 봉쇄했다.

런던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버킹엄 궁, 빅벤, 의사당, 웨스트민스터 사원 등이 있는 Westminster 지역은 소매치기 최다 발생지역으로 알려졌다. 런던의 Camden, Lambeth 지역도 소매치기 빈발지역이다.

2021년 초 런던 남부 지역에서 밤늦게 귀가하던 여성의 실종 사망 사건이 있었으며 런던 지역에서는 칼부림 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야간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Elephant & Castle, Brixton, White Chapel, Bethnal Green, Hackney 등 런던의 주요 우범지역에는 주간에도 가급적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교통법에 따라 먼저 차를 세운 후 시동을 끄고 비상등을 켜다. 교통사고 때문에 인명피해 발생하였다면, 우선 응급번호인 999(응급 상황이 아닐 시는 101)로 전화해 경찰과 구급차를 불러 부상자를 응급 구조한다. 교통순찰차를 불러 사고 경위 조서를 작성 후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정비공장에 견인하도록 한다. 상대방 차의 색깔, 번호, 운전자 이름, 신분증 주소 등을 확인한 후 주위에 있는 증인을 확보하고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회사에 최대한 빨리 전화해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으며, 사건 경위가 파악될 때까지는 선불리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고를 대비해 운전 시에는 항상 신분증, 운전면허증, 보험가입증서, 차량경비 등록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2~3곳 정도의 견적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관광이나 방문 등으로 입국한 단기 체류자들은 사고 및 응급(Accident & Emergency) 시에는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치료를 권리로 주장할 수는 없고 사고 응급 여부에 해당하는지는 의사의 판단에 달려 있다. 또한 진료비 청구에 관한 규정이 병원마다 다르며, 여행객이 병원 이용 시에는 진료비만으로도 200파운드(약 30만 원) 이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의료비가 포함되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 및 휴대폰에 사본을 사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여권을 분실할 경우 현지 경찰에 분실신고를 통해 신고증명서를 받고 대사관에서 재발급할 때 이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 대사관에 신고하면 여행증명서(단기여행 등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대용증명서)나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여행증명서만으로도 한국으로의 귀국이 가

능하다.

○ 본인 직접신청제도

- 여권을 분실했을 때 제출서류를 구비한 후 직접 대사관을 방문해서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한국인 부모가 대리 접수 가능)

○ 발급 여권 종류 및 발급기간

- 복수전자여권

교민, 유학생 등 영국에 장기 거주(6개월 이상) 시 신청할 수 있다.

발급기간은 3주 정도 소요된다.

- 여행자증명서(Travel Document) 또는 단수여권

- 국외 여행 중에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귀국하거나 여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모든 서류가 빠짐없이 준비되고 접수 시 신원에 문제가 없을 경우 1~3일 정도 소요된다.

○ 구비 서류

- 여권 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여행증명서 및 단수여권은 여권용 사진 2장 필요/ 전자여권은 대사관에서 무료 촬영 가능)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 사진

* 사진 길이는 3.5cm × 4.5cm이며, 사진 안의 얼굴의 길이는 2.5cm 이상 3.5cm 이내

* 색안경과 모자 착용 금지

* 흰색 바탕의 무배경 사진

- 여권 분실신고서, 각서

- 신분 확인 서류

* 사진이 나와 있는 대한민국 신분증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분실한 여권 및 구여권의 사본도 가능)

* 관광객은 항공권 사본(e-ticket이나 여행사에서 보낸 confirmation e-mail도 가능)

○ 주재국 체류허가 관련 서류(영국에 체류하고 있는 교민, 유학생일 경우)

- 사증 또는 영주권 증명서류

- 재직증명서(인적사항, 근무 시작일, 근무예정기간 및 동반가족 명시)

- 재학증명서(입학일, 전공과목, 이수과정 및 졸업예정일 명시)

○ 여권 발급 수수료(전자여권)

- 10년 기준: 48페이지 - 41.00파운드/ 24페이지 - 38.50파운드

- 5년 기준: 48페이지 - 35.00파운드/ 24페이지 - 32.50파운드 (만 8세 이상)

- 5년 기준: 48페이지 - 25.50파운드/24페이지 - 23.00파운드 (만 8세 미만)

- 5년 미만: 11.50 파운드

- 임시여권: 여행증명서 - 5.5파운드, 단수여권 - 41파운드

* 세부내용은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http://overseas.mofa.go.kr>)

3) 응급 전화번호

병원 응급실(앰블런스): 999

경찰서: 999

소방서: 999

범죄, 테러 등 위급사항 시: 999

9.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1) 교통과 학군 등 입지를 고려

영국에서 집을 구하는 데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은 가장 중요한 예산 이외에도 자녀가 취학할 학교의 위치, 지하철역과의 거리, 쇼핑 등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주요 주택 중개 사이트

주택 물색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인 <https://www.rightmove.co.uk/> 또는 <https://www.zoopla.co.uk/>에 올라오는 임대 광고를 검색하여 얻는 경우도 있으며,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지역마다 체인을 가진 Foxton, Hawes&Co 등과 같은 지역 부동산을 접촉하여 매물 정보를 확인한다. 인터넷이 대중화가 된 요즘은 대부분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고 있으며, 매물 정보를 게재한 해당 부동산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정보와 뷰잉 가능 여부를 문의한다.

3) 주택 매입 및 임대 신청 과정

주택 매입 시에는 변호사를 통해 안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모기지를 이용하는 경우 모기지 브로커를 고용하여 좋은 조건의 모기지를 찾을 수 있다. 모기지 승인까지는 보통 2개월 가량 걸릴 수 있으며 렌더(Lender)에 따라 외국인의 비자 상태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매매를 결정하기 이전에 어떤 렌더가 이용 가능한지 파악하는 것이 좋다.

주택 임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 수수료는 집세의 10~20%로 집주인이 내게 되어 있으며 임차인은 디포짓(Deposit, 보증금)만 요구된다. 2019년 6월 1일부터 임차료 법이 발효되면서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권을 갱신할 때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법이다. 연간 임대료가 50,000파운드 미만이라면 보증금은 임대료 5주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여야 하며 임대료가 50,000파운드 초과인 경우 6주로 제한된다. 부동산 예약 시 임대료 1주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를 예약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금액은 환불 가능하다.

주택 임차 시에는 특히 향후 임대 계약기간 만료 후 원상 복구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 전에 비품 목록(inventory list)을 작성, 주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보관, 퇴거 시 상호 체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계약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 만료일 1~3개월 전에 반드시 편지 또는 이메일(written letter)로 집주인과 중개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영국의 주택은 크게 개인 주택(House)과 연립주택(Flat)으로 나뉘며, 개인 주택도 건물 형태에 따라 완전 단독 주택인 Detached House, 두 주택이 붙어있는 Semi Detached House, 여러 가구가 붙어있는 Terraced House 등으로 나뉜다.

전화

전화는 국영 BT(British Telecom)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보통 BT 인터넷(BT Broadband)과 패키지로 신청하거나 Sky, Virgin Media, Talk Talk, Plusnet 등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 주택의 전화번호 발급 및 라인 개설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영국 전역에서 국번 없이 152번 BT Residential Service로 전화하여 요청하면 전화선이 있는 경우 전화국원의 가정방문 없이 자동으로 신청 3일 이내에 개통되지만, 인터넷 설치의 지역에 따라 2주일에서 1달 정도 소요된다.

전압/플러그

영국의 전기 전압은 240V, 50Hz로 우리나라의 220V, 60Hz 전기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2구 콘센트를 사용하는 데 반해 영국의 전원 콘센트는 전원을 공급하는 두 개의 막대와 감전 방지를 위한 접지용 막대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3구 형식으로, 변압기가 필요하다. 벽에 달린 콘센트 대부분은 벽면에 스위치가 있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위치를 끌 수 있게 돼 있다.

식수

영국의 물은 석회질이 함유되어 있어 석회수가 다소 생소한 사람들은 정화되지 않은 석회수를 먹으면 배탈이나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물 정화장치 및 정수기능의 필터기를 이용해 수도물을 한 번 걸러서 마시거나 생수, 탄산수를 구매해 마시는 방법, 한 달 정도 지속되는 휴대용 필터가 달린 텀블러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영국에서 신차를 구매하고자 한다면 자동차 대리점에 가서 직접 시승을 해본 후, 할부, 금리 등의 계약조건을 따져 구매하면 된다.

영국은 중고차 매매 절차가 간단하여 비교적 쉽게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으며, 중고차 구입은 크게 개인 거래, 중고차 딜러, 혹은 카자이언트, 오토트레이더(대표적인 중고차 매매사이트들)로 이루어진다.

*<https://www.cargiant.co.uk> (해외전용링크)

**<https://www.autotrader.co.uk>

- 거래 시 차량 상태에 대한 면밀한 체크가 필수이며,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 차량 등록증 확인: 차량 소유인과 거래인 일치 여부
 - M.O.T. 증명서의 날짜 확인: 매년 실시되는 자동차 안전 관련 파트에 대한 검사기록
 - 보증기간 확인: 보통 대금지불 영수증에 언급되며, 대체로 비소모성 부품 (엔진, T/M 등)에 대한 보증 기간(1년 혹은 2년)
 - 자동차 정비 이력서 확인: 차량 구입 초기부터 정기적으로 차량점검을 받은 이력
 - 차량 등록증 명의 변경: 개인적으로 차량을 거래할 경우 매도인과 함께 차량 명의 변경 신청란(차량 등록증의 일부분)을 작성 후 DVLA로 우편송부하면 본인 명의로 변경된 등록증을 약 4주 후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차량가격

1) 신차

- 신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영국 내 판매 가격은 각각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 주요 자동차 3사(벤츠, BMW, 아우디) 가격
 - 벤츠: <https://www.mercedes-benz.co.uk/passengercars.html>
 - BMW: <https://www.bmw.co.uk/bmw-cars>
 - 아우디: <https://beta.audi.co.uk/models.html> (해외전용링크)

2) 중고차

- 영국의 중고차 가격은 대표적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 오토 트레이더: <https://www.autotrader.co.uk>

- 카자이언트 : <https://www.cargiant.co.uk> (해외전용링크)

운전면허 취득

한국은 영국과 운전면허의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된 국가로, 한국운전면허증을 영국 운전면허국(DVLA; Driving and Vehicle Licensing Agency)에 제출한 후 영국운전면허증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 최초 발급지가 한국이 아니라도 아래 지정된 제3국인 경우라면 영국운전면허증 교부 대상이 된다.(호주, 바베이도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캐나다, 포클랜드제도, 페도 제도, 홍콩, 일본, 모나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짐바브웨)

교환신청은 상호인정 체결된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영국에 입국해 5년 미만 거주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영국 내 거주가 6개월 이상(BRP카드 유효기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영국 거주 최초 1년까지는 국제면허증으로 영국 내 운전이 가능하지만 1년 경과 후에는 영국면허로 교환하여야 하며, 이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임시면허증을 신청하고 이론 및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면허증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 교환을 받을 수 있는 “5년 미만 거주요건”에 부합하는 지 여부는 영국 운전면허국(DVLA)에서 심사한다.

영국 운전면허증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수수료 및 시험은 다음과 같다.

- 구비서류: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 원본, DVLA의 D1 양식(우체국에서 교부),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면허증의 영문 번역본 및 대사관 공증서
- 면허증 교환 발급 수수료는 43파운드이며 소요기간은 3주 이상이다.
- 면허증 교환 발급: <https://www.gov.uk/exchange-foreign-driving-licence>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 Barclays 은행: 1690년 설립된 글로벌 은행으로,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투자은행과 별개로 개인뱅킹, 기업뱅킹, 자산관리, 투자 관리의 4대 핵심 사업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 HSBC 은행: 홍콩, 상하이 은행(Hongkong Shanghai Banking Corporation)의 약자로, 1865년 당시 영국령이었던 홍콩에서 처음 설립, 글로벌 은행으로 발돋움했으며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다.
- Natwest 은행: 국립 웨스트민스터 은행(National Westminster Bank)의 약자로, 1968년 국립 지방은행(National Provincial Bank)과 웨스트민스터 은행(Westminster Bank)가 합병되면서 설립됐으며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다.
- Lloyds 은행: 영국의 주요은행 중 하나로 1965년 창립했으며, 영국 전역에 지점을 가지고 있다. 경상계좌, 저축, 모기지, 대출 및 신용카드를 포함 포괄적인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 Monzo : 한국으로 치자면 카카오뱅크와 유사한 인터넷 전용은행으로, 가입이 비교적 간단하여 젊은층의 수요가 많다. 자금이체, 직불카드 결제, 결제금 분할(Split the bill)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계좌 개설방법

영국에 있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려면 예금주의 주소지 증명, 신분증(여권)이 필요하다. 당좌예금 계좌는 잔액에 대해 이자가 붙지 않고 개인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계좌이다. 은행 계좌 개설은 온라인과 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나, 은행 방문 시 사전에 예약이 필요한 점이 한국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직불카드는 은행 계좌 개설 일주일 후 우편으로 전달되며, 카드 핀(Pin) 비밀번호는 카드와 별도의 우편으로 전달된다. 그 후 카드는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수령한 카드 핀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면 해당 은행 또는 ATM에서 변경할 수 있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 Halcyon School

도시명	런던
커리큘럼	문학, 수학, 과학, 지리학, 역사, 예술, 드라마, 음악, 디자인, 컴퓨터
학비	등록비: 200파운드 한학기 기준(1년에 3학기) Year 6~9: 8,391파운드 Year 10: 8,616파운드 Year 11~12: 8,784파운드
홈페이지	https://halcyonschool.com/
비고	하이드 파크 근처에 위치한 국제학교

◦ Westminster School

도시명	런던
커리큘럼	영어, 수학, 과학, 지리학, 역사, 종교, 프랑스어, 예술, 드라마, 음악, 디자인, 컴퓨터
학비	기숙학교: 1년 기준 41,607파운드
홈페이지	https://www.westminster.org.uk/wgs/
비고	웨스트민스터 사원 근처에 위치, 명문 사립학교

◦ St Pauls School

도시명	런던
커리큘럼	영어, 수학, 과학, 지리학, 역사, 종교, 프랑스어, 예술, 드라마, 음악, 디자인, 컴퓨터, 라틴어
학비	등록비: 175파운드 한학기 기준(1년에 3학기) 주니어: 6,906파운드 시니어: 8,636파운드

홈페이지	https://www.stpaulsschool.org.uk/
비고	명문 국제학교, 남학생 학교와 여학생 학교가 따로 있음.

〈자료원 : KOTRA 런던 무역관〉

- 현지학교

◦ City Of London School

도시명	런던
커리큘럼	영어, 수학, 과학, 컴퓨터, 역사, 음악, 미술, 체육, 외국어(프랑스어, 중국어)
학비	한 학기 약 6,313파운드
홈페이지	https://www.cityoflondonschool.org.uk/
비고	세인트폴 대성당 근처에 위치, 남학교

◦ Guildford High School for Girls

도시명	런던
커리큘럼	영어, 수학, 과학, 컴퓨터, 역사, 음악, 미술, 체육, 종교, 외국어(프랑스어, 라틴어)
학비	한 학기 기준 (1년에 3학기) 리셉션-Year 1: 3,634 파운드 Year 2: 4,177 파운드 Year 3-6: 4,719 파운드 Year 7-Sixth form: 5,834 파운드
홈페이지	https://www.guildfordhigh.co.uk/
비고	런던 남서쪽에 위치, 여학교

◦ City of London School for Girls

도시명	런던
커리큘럼	영어, 수학, 과학, 컴퓨터, 역사, 음악, 미술, 체육, 종교, 외국어(프랑스어, 라틴어), 지리학
학비	한 학기 약 6404파운드
홈페이지	https://www.clsg.org.uk/
비고	세인트폴 대성당 근처에 위치, 여학교

〈자료원 : KOTRA 런던 무역관〉

마. 병원

◦ St Thomas Hospital

도시명	런던
주소	Westminster Bridge Rd, Lambeth, London SE1 7E020 7188 7188H
전화번호	020 7188 7188
진료과목	종합병원

◦ University College Hospital

도시명	런던
주소	235 Euston Rd, Fitzrovia, London NW1 2BU
전화번호	020 3456 7890
진료과목	종합병원

◦ St Bartholomews Hospital

도시명	런던
주소	W Smithfield, London EC1A 7BE
전화번호	020 7377 7000
진료과목	종합병원

<자료원 : KOTRA 런던 무역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비스터빌리지(Bicester Village)

도시명	Bicester
주소	50 Pingle Drive, Oxon, OX26 6WD
홈페이지	https://www.bicestervillage.com/en/home/
비고	각종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 할인 아울렛(버버리, 던힐, 멀버리, 발리, 아쿠아 스쿠텔, 페레가모, 구찌 등)

◦ 웨스트필드(Westfield)

도시명	London
주소	Westfield, Centre Management Suite, Unit 4006, Ariel Way, London, W12 7GF

홈페이지	https://uk.westfield.com/london
비고	런던 내 최대 규모의 쇼핑몰 식품(쇼핑몰 내 푸드코트), 의류(유명 디자이너 브랜드), 생활 잡화류 및 영화상영관

◦ 포트넘 앤 매이슨 백화점(Fortnum and Mason)

도시명	London
주소	181 Piccadilly, London, W1A 1ER
홈페이지	https://www.fortnumandmason.com
비고	1707년 오픈한 3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백화점 - 차, 소스, 와인을 비롯한 고급 기호품 취급

◦ 버버리 팩토리숍(Burberry Factory Shop)

도시명	London
주소	29 Chatham Place, Hackney, London E9 6LP
홈페이지	https://uk.burberry.com/outlet-stores
비고	런던의 북동쪽에 있으며, 과거에는 재고품이나 하자품을 판매하는 팩토리 아웃렛이었으나 현재에는 현대식 직영매장 - 의류, 가방, 신발 등 취급

◦ 해롯 백화점(Harrods)

도시명	London
주소	87~135 Brompton Road Knightsbridge London SW1X 7XL.
홈페이지	https://www.harrods.com/
비고	런던 나이트브리지(Knightsbridge) 에 위치한 럭셔리 백화점으로 디자이너 브랜드, 화장품, 식품, 가구 등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다.

〈자료원 : KOTRA 런던 무역관〉

- 식품점

◦ 버로우마켓(Borough Market)

도시명	런던
주소	8 Southwark St, London SE1 1TL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

○ 스피탈필즈마켓(Old Spitalfields Market)

도시명	런던
주소	16 Horner Square, London E1 6EW
취급 식료품	각종 먹거리와 수공예품, 옷, 신발 등

○ 브릭레인마켓(Brick Lane Market)

도시명	런던
주소	91 Brick Ln, London E1 6QR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

○ 빌링스게이트(Billingsgate Market)

도시명	런던
주소	Trafalgar Way, London E14 5ST
취급 식료품	수산물
비고	수산시장

〈자료원 : KOTRA 런던 무역관〉

- 기타 편의시설

○ Oasis 스포츠센터

도시명	런던
주소	32 Endell St, London WC2H 9AG
홈페이지	https://www.better.org.uk/leisure-centre/london/camden/oasis-sports-
소개	토티엄 코트역 근처 종합 운동시설

○ Urban 골프 연습장

도시명	런던
주소	12 Smithfield St, Farringdon, London EC1A 9LA
홈페이지	https://urbangolf.co.uk/
소개	실내 골프연습장

〈자료원 : KOTRA 런던 무역관〉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신정 대체 휴일(New Year's Day, substitute day))	2022-01-03	
성(聖) 금요일(Good Friday)	2022-04-15	
부활절(Easter Monday)	2022-04-18	
뱅크 홀리데이(Early May Bank Holiday)	2022-05-02	
뱅크 홀리데이(Spring Bank Holiday)	2022-06-02	
뱅크 홀리데이(Platinum Jubilee Bank Holiday)	2022-06-03	즉위 70주년 기념 휴일
뱅크 홀리데이(Summer Bank Holiday)	2022-08-29	
박싱데이(Boxing Day)	2022-12-26	
크리스마스 대체 휴일(Christmas Day, substitue day)	2022-12-27	

<자료원 :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bank-holidays>)>

10. KOTRA 무역관 안내

○ 런던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1st Floor, Brettenham House North, 12-13 Lancaster Place, London WC2E 7EN
- 전화번호: +44 020-7520-5300
- 이메일: kotra@kotra.co.uk
- 홈페이지: <https://www.kotra.or.kr/KBC/london>

공항-무역관 이동

1) 방법 1. 지하철

- 히드로공항을 경유하는 지하철(Underground) 라인은 Piccadilly Line으로 히드로 공항 도착 항공편에 따라 Heathrow Terminals 2 & 3역(1,2,3 터미널에서 이용 가능)과 Heathrow Terminal 4역, 그리고 Heathrow Terminal 5역으로 나뉜다. (2021년 5월 기준 터미널 4역은 임시 폐쇄중)
- 하차역: 차링크로스(Charing Cross) 역(Northern Line, Bakerloo Line)에서 하차 후 Strand Street (출입구)로 나간 후 Waterloo Bridge를 향해 200m 정도 걸으면 Waterloo Bridge(템즈강 다리 중 하나) 입구 바로 전 오른편 건물(Brettenham House) 1층에 무역관이 입주해 있다(* 한국식으로 2층)
- 요금: 3~5파운드(히드로-차링크로스 기준)
- 소요시간: 약 1시간

2) 방법 2. Heathrow Express

- 히드로공항에서 런던 시내 패딩턴(Paddington) 역까지 운행하는 급행열차로 15~20분 정도 소요된다.
- Paddington역에서 지하철(Underground)로 환승(Bakerloo Line 이용)하여 Charing Cross 역에서 하차하면 됨.
- 요금: 22~38파운드(히드로-패딩턴 기준)

3) 방법 3. 택시(블랙캡)

- 길을 찾고 밖으로 바로 나오면 택시 정류장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운전사에게 무역관 주소를 보여주면 된다.
- 요금: 약 85~100파운드 정도. 탑승자 수, 수하물 개수, 심야시간대 할증 등에 따라 요금이 추가될 수 있다.
- 소요시간: 50분
- 요금 지불 시 금액의 약 10%를 팁으로 주어야 한다

4) 방법 4. 미니캡

- 런던에서 미니캡을 운영하는 택시 회사를 찾아 온라인 혹은 전화로 예약하면 고정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 공항에 도착시 입국장에서 운전 기사를 만나거나 공항 밖 차량 대기 장소(drop-off)에서 만날 수 있다.

5) 방법 5. 우버

- 우버 앱을 사용하면 택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 공항 내에 공유차량 주차장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건물 도착 후 로비 Security Desk에서 방문처를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역관에 유선으로 확인 후 출입증을 제공해 준다. 무역관의 확인을 위해 방문 전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방문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다.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